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제268호 | 2016년 8월

www.snuaa.org

news@snuaa.org

SNU Alumni Association USA |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 Tel: 484-344-5500 Fax: 484-342-0222 | 발행인: 손재욱 편집인: 김정현



샌디에고 동문들의 지역봉사, Bread of Life 방문 (14면 기사 참조)



손재욱 (가정대 77)

많은 음성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미주동창회는 그동안 960명 가량의 회원님들께서 회비로 격려를 해 주셔서 제 13대의 1차년도를 \$12,989 흑자로 마감(결산보고 10면)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회비를 능가하는 후원금은 동창회를 기억하고 발전을 기원하시는 동문님들의 마음과 희생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후원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평의원회의에서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회칙상으로 정의가 되어있는 '장학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육사업(Education)은 우리 동창회의 두가지 설립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여섯분의 위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보람된 장학사업을 벌여 나가려고 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모교의 후배들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미주동문들의 자녀들을 돕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동포사회에까지 우리 미주동창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둘째는 미주동창회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인 'Charity'를 위해 나눔위원회(Charity Committee)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동문들과, 나아가서는 동포사회와 미국사회에

"제가 은퇴를 해서 75불 밖에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75불 회비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Registered Mail로 보내드립니다"

"75불은 너 때문에 도움이 되라고 보낸단다"

"75불을 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보냅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차년도를 시작하며

75불 모아 태산을 · ·

까지 나눠보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현 사회 봉사담당 부회장님이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지부들이 참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 동창회가 미주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고 동창회의 존재목적이 좀더 확고해 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사업에도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문들의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미주동창회의 힘은 우선 회원님들의 회비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한분 한분의 정성이 모아지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원해 오신 동문님들은 친구 한명씩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참가하지 못하고 계신 동문님들은 이번 기회에 참여해서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사업들에 보람을 함께 느끼시라. 전체 주소록에는 약 6,700의 회원이 계십니다. 저희 미주동창회의 회보는 한달에 한번씩 미주동문님들께 배달이 됩니다. 혹시 받지 못하시는 동문님께서는 general@snuaa.org(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세대 동문님들 어디에 계세요? 사는 것도 바쁘는데 동창회까지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고 묻는 동문이 계십니다. 서울대 동문이기에 한번 쯤은 동창회에 나가게 되고 선.후배 사이에서 한번 쯤은 임원으로 봉사하게 되지요. 자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동문들의 희생으로 선.후배가 즐거운 교제를 하게 되며 타인으로 지나치게 될 인간관계가 가족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지요. 우리의 삶이 한층 더 윤택하게 됩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동창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창시절을 잊지않고 손한번 더 잡아보고자 하는 동문님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후원금 봉투가 올 때마다 뭔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여러 동문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차 회기년도에도 어깨동무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나눕시다.

CHANGE SERVICE REQUESTED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 | | |
|---|---|
| <p>1 손재욱 회장: '2차년도를 시작하며'</p> <p>2 정운찬 전총장: 우리의 운명은/브레인네트워 김연호 북한</p> <p>3 백순: 브렉시트와 세계경제/채병건: 클린턴 vs 트럼프</p> <p>4-5 동정: 김수이/김세윤/김범수/ 모교소식: 봉사/돌아보는 삶</p> <p>6-7 회계보고/이홍규: 인류의 기원/조상하: 문화유산</p> <p>8-9 지부소개: 워싱턴 DC</p> <p>10 김영: 스코필드박사의 삶/차차기회장 선출 공고</p> <p>11 김한신: 대련/ 류연수: 미주 평의원회의 방문기</p> <p>12-14 지부: 필라/오레곤/워싱턴주/시카고/남가주/북가주</p> | <p>14-15 샌디에고/ 개인전: 김현정/박영구/ 계시관</p> <p>16-18 보고싶다 친구아/ 독후감: 최강국 '친구가'</p> <p>16-18 장용복 오페라산책/ 백순 교수 팔봉문학상 수상</p> <p>19 박혜숙: 등대/ 부고: 오병현 동문/ 시: 광상희</p> <p>20 신간: 윤기향 시가 있는 경제학/ 서경석: DMZ</p> <p>21-22 안선미/이상봉/ 양지훈: 락콘서트 탐방기</p> <p>23 지종근: The Greatest/ 김창수 아카데미의 매력</p> <p>24 김지윤: 인턴후기/ 이상실: 산행/ 김미자: 해금</p> <p>25 이달의 사진/ 독자의 광장: 김해암/이태상</p> |
|---|---|

[역사]

인류의 기원, 한민족의 기원



이흥규 (의대 68)

인류(사람 종류)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칼 린네다.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존재자들을 분류하던 중 하나의 종으로 규정하였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명명하였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추적하여 진화론을 제시하고, 인류는 아프리카의 유인원에서 진화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20세기에 진화론은 멘델의 유전학과 합쳐 실험성이론으로 발전하였고, 빌리 헤니히는 생명체들의 계통발생체계를 논리적으로 구축하였다. 왓슨과 크릭이 유전자의 물리적 구조를 알아내자, 여러 학자들은 유전자 염기서열을 읽어내는 기계를 만들었고, IT기술과 전산학 등과 합쳐지면서 21세기는 유전(정보)학의 시대가 되었다. 유전체의 염기서열은 생명체의 청사진이어서 염기서열을 알면 그 생명체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지구의 역사를 알게 해 준 각종 물리학적 연대측정법 등 다양한 관찰기술들의 발달에 힘입어 고고학, 인류학, 언어학 등 우리의 과거를 직접 알려주는 학문들도 크게 발전하였다. 생명체의 기원과 진화과정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서, 인류, 우리 민족의 과거도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신인류가 약 20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나타나서 6만년 전쯤 중동지역을 거쳐 전 세계에 퍼져 살게 되었다는 것도 미국 버클리대학의 알란 윌슨 등에 의한 유전학적 연구로 처음 제시되었다. 한국인들은 아시아의 동쪽 끝 중앙부에 위치하여 유전형질을 보면 남방을 통해 이동해온 사람들과 시베리아를 거쳐 동진한 후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혼혈되며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독일 막스플랑크 인류학 연구소의 스반테 파아보는 에집트의 미이라, 수만년 전에 멸종한 네안데르탈인, 제3의 인류(데니소바인), 그리고 무덤에 묻혀있던 사람들의 뼈에서 DNA를 추출하여 그 염기서열을 해독하는 기술을 완성시키고, 놀랍게도 우리 몸 속에 그들의 유전자들이 제법(1~2%)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혼혈로 인간들의 능력이 크게 증진하였으리라는 추정을 하게 만들었다. 네안데르탈인, 직립인(호모 에렉투스)들의 멸종이 그 증거다. 이러한 고인골 유전자의 분석 기술은 과거 인류의 이동과정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고 있다. (고고 유전학: archaeo-genetics)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여서, 유전자만으로는 어떤 인간집단을 완벽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한국인이 형성과정을 추적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유전학적 특징뿐 아니라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그 하나는 우리 말이다. 최근 미국 산타 페 연구소와 소련 언어학 연구소가 같이 만든 인류 언어

진화 프로젝트는 우리 말이 인도 유럽어와 약 13,000년 전 같은 뿌리, 노스트라티아에서 나왔다고 결론지었다.

인도-유럽어의 기원은 카스피해 북부 암나야 문화(바퀴와 특히 마차의 발명)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2015년 하버드대학의 데이비드 라이시 등에 의해 여기에 살던 사람과 같은 유전체를 가진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동하며 언어와 corded ware 문화를 가져갔다는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었다.

이와 비슷한 토기가 북유럽의 핀란드와 스웨덴, 북부 독일, 폴란드 등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굴되어 핀란드의 고고학자 아이리오는 ‘캄케라믹’(kammkeramik)이란 이름을 붙였었다. 그 뒤 시베리아 동서쪽 광활한 지역에서 속속 발굴되어 ‘캄케라믹’은 빗살무늬토기 일반에 대한 학명이 되었는데,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북위 55° 이북에 하나의 문화대를 이루고 나타나 ‘환북극(環北極) 문화’라고도 부른다. 한반도에서 이 토기는 8,000년 전부터 나타난다. 통설하면 한민족은 빙하기의 시베리아에 노스트라티어를 사용하고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며 추위에 적응된 체질을 발달시켜 온 사람들이 빙하기 이후 남으로 내려오며 이 지역에 살고있던 남방계 사람과 혼혈되어 형성되었다고 해석된다. “한국인의 기원”은 한국인과 주변 민족들의 유전학적 차이를 설명하고 동시에 언어적 차이와 단군 신화 등 자료들을 모아서 한민족의 형성과정을 추정하고 있다.



아프리카를 탈출한 현생인류의 이동 경로와 당시의 Y 염색체 유전형 추정. 붉은 점들은 테드 괴벨이 그린 후기 구석기 문화의 분포도



한국인과 한국어 형성을 추정해 그린 것. 배경을 이루는 중국과 지역의 문화는 2009년 Science에서)



조상하 (공대 58)

필자는 2000년대에 접어들자 소장하고 있던 한 금동불상에 대한 추적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놀랍게도 1,600여 년이나 역사에서 사라졌던 마라난다의 백제불교전파에 대한 자초지종을 알아내게 되었다. 이를 백제불교전래사로 정리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삼국사기에 “마라난다(摩羅難陀)가 동진을 거쳐 384년 백제의 신도(新都) 한산(漢山)에 들어와 이듬해 백제최초의 절을 짓고 10인이 중(마라난다의 제자)이 되었다”라 하였다. 또 해동고승전에 김부식의 글을 인용하면서 “축건(竺乾)에서....”라 적고 있다. 축건이 Gandhara라고 알려지기는 최근의 일이다. 이제 필자는 마라난다의 유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발견을 필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약해 소개하고자 한다.



마라난다전수 금동아미타여래좌상 (사진 1)

Gandhara의 Dharmarajika (I) 승원(사리의 분배승원이란 은어)에서 기원 76년경 Kushan왕조의 Kanishka왕의 명으로 사리를 대이동하면서 처음 금속 평 불상이 만들어졌는데 세 점이 현존하고 있다. 기원 380년경 Gupta왕조의 Chandragupta II 왕명에 따라 다시 사리 대이동이 있었는데 이 때 조상한 불상 중 두 점이 현존하고 있다. 전파하는 사리가 아미타여래(승천한 석존)의 사리임을 증명하는 징표로 조상하였다.

이 불상은 후자의 하나로, 마라난다(摩羅難陀)가 384년 9월 백제 침류왕에게 봉헌한 삼존불(아미타불, 미륵보살상과 관

음보살상) 중에 본존인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이다. 높이는 9.6 cm이다. 이 불상은 기원 427년 고구려가 한산을 공략하였을 때 매몰되었다가 안양주민인 이종한이 1973년 6월 집 뒤 안양사지 언덕에 기둥을 세우기 위하여 땅을 파던 중 발견되었다. 필자가 이 불상이 마라난다전수 불상임을 고증하고 발표하기는 출토된 뒤 33년이 지난 2006년의 일이었다.

마라난다는 백제의 한산에 최초의 승원을 385년 2월에 착공하고 392년 2월에 완공하여 Dharmarajika (II) Sangharama라 칭하였다. 이 승원지가 발굴된 뒤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마라난다는 승원에 주탑, 중정탑, 48기의 지하 예불탑을 건설하고 그가 가지고 온 780립의 사리를 분산 비장하였다. 551년 백제 성왕은 신라와 연합하여 옥리하(지금의 한강)유역의 고구려군을 소탕하였으나 신라군은 물러가지 아니하고, 553년 한산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때 성왕은 48기의 예불탑을 개봉하여 사리를 사비성으로 이장하였다.

555년 신라 진흥왕은 주탑을 개봉하여 사리 39립을 취한 뒤 불국사를 짓고 나머지 사리를 통도사에 봉안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주탑산 내의 사리를 약탈당하고, 1866년 불탄서 해병대에 의해 폭파 폐사되었다.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害)에 대한 보복이었다. 안양시청은 6.25동란 직후 안양사지와 인근유적지를 사유화하고 마라난다유적지에 유유제약공장을 짓도록 건축허가를 발부하였다. 2008년 공장지는 안양시청이 다시 매입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향토사학자 정덕한(鄭德漢)의 주장에 따라 기존건물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굴이 허락되었다. 이 승원지는 2009-1011년에 한울문화유산 연구소에 의하여 드디어 부분적으로 발굴되었다.

이 발굴에서 범자 셋이 발견되었다. 필자는 이를 단서로 Malananda Code(18립자와 18립어. 밑에는 여래, 보살, 명왕, 천왕, 불구 등 암호단어들을 의미)를 밝혀냈고 이를 토대로 마라난다전수 사리 총수(780립)와 주탑(78립), 중정탑(78립), 48기의 지하 예불탑(각 탑에 13립)의 위치와 위치의 범어명을 정확히 알아내게 되었다. 김부식은 1131년 안양사에 대각국사 의천의 추모비를 찬하였고 곧이어 1145년에 삼국사기의 마라난다조에 “...도승십인(度僧十人)“이라 기록한 점으로 봐 그 자료출처가 이번 발굴에서 발견된 “...십인(十人)”명 기와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발굴로서 이 승원지가 마라난다장건 승원지라는 것이 충분히 재



마라난다장건 Dharmarajika (II) 승원지 (광덕사라 한역, 555년 안양사라 개칭) (사진 2)

확인되었다. 기원 76년경 Kushan왕조의 Kanishka왕명으로 Dharmarajika 승원에서 300여 년간 암송으로만 전해 오던 밀경을 패엽(貝葉)에 기록하였다. 이 원전의 암호명이 Amoghāpāśa이다. 이를 전수받은 Chan-dragupta II 왕은 380년경 당대 범어학자들에게 명하여 이 원전의 패엽필사본(암호명 Amoghānkuśyā)을 만들었고, 사리전파 장도에 오르는 마라난다에게 주었다.

이 밀경원전 패엽의 크기는 길이 56.6 cm, 너비 5.7 cm, 161 매, 322쪽, 매 쪽 7 행으로 기록되어 있다. Dharmarajika Code가 주 내용이다. 이 패엽범어원전의 진본은 현재 대만 중앙박물관에 비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존재자체가



마라난다전수 불공견삭신변진언경 패엽범어원전 (사진 3)

비밀이다. 백제의 위덕왕은 560년경 사리 13립과 다른 범문불경과 함께 이 패엽범문의 서문(암호명 Amoghāpāsam) 사본을 수(隋)에 전달하였다. 이를 Jnana-gupta가 587년 한역한 이래 705년까지 8차례나 번역이 시도되었다. 백제가 불사리와 범문원전을 갖고 있음을 알아차린 당(唐)은 백제에게 그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한 듯하다. 백제가 이를 거부하자 당은 소정방을 보내 660년 백제를 공략하였다. 백제의 의자왕은 정림사 오층석탑에 비장되어 있던 189불골간자를 금산수(金山藏)의 순제(順濟)에게 주어 은닉토록 하였으나 패엽범문은 당에게 약탈당하였다. Bodhiruci는 707년에 이를 한역하여 불공견삭신변진언경(고려대장경 K-287)이라 하였다. 필자는 일부 Dharmarajika Code를 풀 수 있었다.

이 밀경의 핵심은 역시 Dharmarajika (I) 승원에서의 많은 사리를 비장한 위치와 수량을 필자, 밑어, 밑문으로 기록한 비밀문서라는 사실이다.

지부 소개

워싱턴 DC



National Mall



George Washington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1. 워싱턴 지역(DC, MD, VA, & WVA) 동창회 설립 및 활동 상황

- 1978년 6월 19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발족되어, 2016년 7월에 제35대 안선미 (농 65) 회장단이 출범하였다. 동창명부에 있는 회원은 약 630여 명이지만 동창회 모임과 활동에 참석하는 동문수는 100여명 정도다. 회장임기는 2년이며 약 30여명의 이사들이 있다.

- 워싱턴 지역 동창회 제11대 회장이던 박윤수 동문과 당시 서울대 총장이셨던 조완규 동문이 주축이 되어 1992년 최초로 미주 총동창회가 태동된 곳이기도 하다. 초대 회장으로 박윤수 동문이 역임한 이후 지금까지 총 3명의 미주동창회 총동창회장을 배출하였다. (초대 박윤수, 8대 이영목, 12대 오인환).

- 매년 열리는 연말 파티 행사에 가장 많은 동창들 (80-100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4년 전 함은선 회장부터 시작된 구정잔치를 통해 선배들이 떡국을 먹고 전통놀이를 하며 친목과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 그 외에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봄가을에는 golf 대회, picnic, wine tasting 등의 다양한 모임을 가지고 있다. 공대, 농대, 상대, 음대, 의대 등의 단과대별 모임이 활발하며, Washington DC 내 World Bank, IMF, Government 등에서 근무하는 2000년대 학번 전후의 young members 들이 매달 모임을 가지고 있다. 좀 아쉽기는 관악연대 (70-80년대 학번)의 활동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 2년에 한번씩 '자선음악회'를 열고 있다. 3년전에는 음악회에서 모금된 \$5000여불의 수익금을 이 지역 장애인협회에 전달하였고, 작년 음악회의 수익금은 지역 사회 4곳의 봉사단체에 기증하였다.

- 워싱턴 동창회 내에 '특별기금 관리 및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의생)'가 있어서 매년 4-6명에게 각각 \$1000의 장학금을 12월 송연회 겸 총회에서 수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2007년 (방은호, 약 42, 초대위원장) 이래 꾸준히 잘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47,000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미장학재단 (KASF 동부지회) 를 통하여 비동문을 위한 장학금 \$1000 을 매년 제공하고 있다.

2. 동문들의 삶의 모습들 (직업, 취미, 사회봉사, 교육 등)

- 수도권 워싱턴에 자리잡고 있다보니 연방정부기관이나 World Bank, IMF 등 다양한 연구기관이나 주정부에서 일하거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동문들도 있고, 병원이나 보험, 부동산 등 개인 사업에 종사하는 동문들도 많다.

- 취미활동으로 시, 수필, 소설 등 지역의 문인회 활동에 열심히 동문들도 있고, 여러 지역사회 단체나 기관에 단체장이나 이사 (예: MD Howard County 오크동 (공52)동문, 공순옥 (간호66) 동문)로 일하며 한인 커뮤니티를 섬기고 봉사하는 동문들의 활동도 돋보인다. 또한 동창회 총회 때는 매년 지역사회 지식인이나 정치인을 초청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혜를 얻는 유용한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총회에는 변만식 전회장의 아들인 Herold Pyon (VA 공화당 위원장 역임)이 ' 미국의 선거제도 및 2016년 대통령 선거제도 '란 주제로 강의하였다.

3. 동창회의 그동안의 활동(동문이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 중 타 지부에게도 권하고 싶은 자랑스런 일이 있다면?

1965년에 국가당 쿼터제를 없애고 아시아계와 히스패닉 계를 대거 유입하자는 혁명적 이민법이 제정되면서 70년대부터 미국엔 새로운 '이민 물결'이 불어 닥치게 되었고, 수도권 워싱턴 지역도 한인 인구가 급격히 늘게 된다. 그러면서 한인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자녀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을 도와주는 여러 분야의 봉사단체들 (예: 한인연합회, 봉사센터, 장학재단, 워싱턴 가정상담소, 한미교육재단 등)이 50-60년대 유학와서 이미 미국주류 사회에 활동하던 서울대 동창생들에 의해 설립되거나 추축이 된 경우가 많았다. 그 이후에도 이어나 이사장, 회장 등의 중책을 맡아 지역사회와 커뮤니티를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선음악회를 통해 남겨진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조금 아쉽기는 동창회 자체 활동 중에 직접 커뮤니티에 함께 나가는 봉사활동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바라기는 친목과 강연 외에도 지역사회에 직접 함께 나가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활동을 기대해본다.

4. 소개하고 싶은 관광명소, 문화/정신적 가치, 교육, 역사 등 그 중에서 워싱턴 지역을 상징하는 한개의 Object를 꼽는다면?

미국의 수도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수도인 워싱턴에는 지면에 미처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유명한 관광명소가 많다. 특히 봄 (3월말 - 4월초) 에 열리는 벚꽃 축제가 유명하다. 포토맥 강변에 자리잡은 케네디 센터는 워싱턴이 문화의 중심으로 손색이 없음을 보여주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들이 펼쳐진다. 서쪽으로 한시간 운전하고 가면 세계 10대 트레일인 아팔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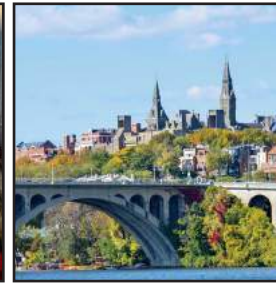
White House



Annapolis



Smithsonian Museums



Potomac River



Luray Cavern



Skyline Drive

안 트레일을 품고있는 루레이 동굴과 쉼난도우 국립공원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한다. 한 3시간 쯤 남쪽으로 내려가면 영국인이 최초로 신대륙에 정착한 곳인 제임스 타운과 윌리엄스버그가 있어 미국 역사의 태동부터 정착과정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동쪽으로 한시간 거리에는 Maryland 주 수도 Annapolis 가 있고 인접하여 강과 만으로 둘러 싸인 미해군 사관학교가 있는데 워싱턴 인근 관광명소 중에 하나다. 그 중에서 워싱턴을 상징하는 한가지를 고르는 일은 쉽지 않다. 혹자는 세계를 움직이는 백악관을, 어떤이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을, 혹 다른 이는 연필처럼 솟아있는 워싱턴 모뉴먼트를 고를 수도 있다. 그러나 워싱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놀라는 것 중의 하나는 일주일을 봐도 다 볼 수 없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다. 그리고 두번째 놀라움은 이것들이 공짜라는 사실이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영국인 과학자 제임스 스미슨 (James Smithson)의 기부금으로 1846년 설립된 종합 박물관이다. 정작 본인은 미국에 온 적도 없고 연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 아무런 연관도 없었지만 그의 유언은 "인류의 지식을 넓히기 위한 시설을 워싱턴에 세우고 싶다." 라고 말하며 55만 달러의 유산을 미국에 기증했다. 그것이 1829년의 일로 오늘날의 스미소니언 소사이어티는 60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기관이며, 19개의 박물관과 동물원으로 구성된 세대 최대의 박물관 단지이다. 인류의 역사적인 유물과 순수 예술 작품들이 이곳 한자리에 모여있는데 수집품이 1억3천9백만 개나 되어 너무 많아서 단지 1%만 전시되고 있다.

5. 제35대 (2016.7-2018.6) 회장단의 활동 계획

1) 동창회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동창회 회원 명부를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고 Update 한다.

2) 동창회 회원들의 연령 폭이 크기 때문에, 회원들의 관심과 필요의 정도와 방향이 다르다. 그러므로 작은 group 활동을 계획하여, 젊은 동문의 참여를 도와 활기있고, 선후배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event 를 계획한다.

- 젊은 동문들 모임의 격려와 지원
- Wine Tasting 이나 Winery 탐방
- Museum, Opera, Concert, 미술관 관람
- Picnic, 산행, Golf, Tennis

3) 지역 봉사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동참한다.

- 자선 음악회
- 자선단체의 행사 참여 (ex.: Race for the Cure, Walk to End Alzheimer's)
- 한글학교 글짓기대회 심사 및 상금수여

4) 장학사업

- 워싱턴 서울대학교 동창회 특별기금 관리 및 장학위원회
- 한미장학재단

5) Web Site를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Facebook 같은 SNS를 활용하여 되도록이면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 소식에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안선미 회장의 인사말

“역대 회장단들이 이끌어 오신 전통을 이어 받아 연말 파티, 구정잔치, 강연, 학술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마련하고, 서로 협력하고 돕는 동창회가 되도록, 임원들과 성심껏 일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도움이 있어서 언제나 저희 임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김영 (수의대 63)

남가주 한인 수의사회 회원들이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모시고 고 스코필드 박사님의 삶에 대한 얘기를 감동스럽게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창립 60주년 기념식 축하에서 당시 서울대학교 총장직을 맡고 계시던 정 총리께서 스코필드 박사님의 도움으로 오늘의 자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얼마전 또 LA 여 의사 분이 자기도 스코필드 박사의 말씀에 따라 의사가 되었고 공부도 할 수 있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정 총리나 이 여의사분 말씀의 어조가 단순히 장학금의 수혜자로서가 아니고 그 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어떤 성질의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또 어제 우리 자리에 참석하신 나이드신 여자 시인을 보십시오. 그분도 스코필드 박사님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시집을 팔아서 들어온 돈 전부를 장학금에 기탁하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스코필드 박사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분들과 박사님과의 특별한 관계나 특별한 인연에 대한 의문은 어제 정 총리님의 말씀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아 내었습니다. 또 한국을 자기의 제2의 조국으로 받아들이는 다음의 스코필드 박사의 활동은 학자로서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한국 “국가건설”의 커다란 뜻이 있었던 것 같았고 특히 다음세대의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많은 젊고 뛰어난 인재들을 만나 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신 것은 물론 기독교 신앙으로 뿌리가 박힌 깊은 인류애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와 주신 분이 스코필드 박사가 아니었나 합니다. 스코필드 박사가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저 자신도 착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박사님께서 광복 10주년 기념행사의 국민으로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에 뼈를 묻히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초빙교수라는 자리를 서울대학교에 만들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삼일절 독립선언문의 제 34 인이 되셨을 때는 세브란스 의과대학 교수로(1916-1920) 있었고 그 다음 30여년 동안 토론토 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캐나다

스코필드 박사의 삶

나다가 사랑하는 세계적인 수의 병리학자가 되었습니다. Sweet Clover Poisoning의 원인이 되는 Dicumerol의 발견과 오늘날 광우병의 전신이 되는 양의 Scrapie를 발견하신 것은 세계적인 업적이고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뜻을 더 넓게 더 깊이 펼치고자 하는 것은 스코필드 박사께서 두번째 한국에 오신 다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을 위해서 하신 일들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한국에 오셨을 때 스코필드 박사는 일제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던 한국의 독립을 민족자결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에 호소하신 인도주의자이면서 한국민의 진정한 친구이셨으며 두번째 오셨을 때는 독립은 하였으나 아직도 국민들의 자유는 보장이 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부정부패와 사회 부조리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을 보고 지면을 통해서 정치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국민들을 계몽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하시는 등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하여 우리 국민의 편에 서서 싸우셨습니다.

또 성공공부를 통해 또 박사님께서 설립한 장학회를 통해 젊고 탁월한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나 이들의 마음에 독실한 기독교 윤리관을 심어주고 불의와 싸우는 불굴의 투쟁정신을 길러주신 것 같습니다. 장학금 마련을 위하여 1불, 5불, 10불의 장학기금의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외국에 직접 보내는 등 아버지와 꼭 같은 사람을 보여 주셨고 젊은이들의 소위 말하는 mentor가 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 젊은이들이 자란 다음에도 스코필드 박사는 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분(Unforgettable Characteristics)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박사님의 소망이 열매를 맺어 박사님께서 도와주신 젊은이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한국 도처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 총리께서 LA 한인 수의사회를 방문하신 것은 우리도 스코필드 박사로부터 받은 도움을 아직도 가난과 무지에 허덕이는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장학과 선교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 마련에 도움을 요청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550 Township Line Roa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www.snuaa.org, general@snuaa.org
484-344-5500 / 484-342-0222(F)

제 15대 (2019.7 - 2021.6) 회장후보 추천공고

서울대 미주동창회에서는 미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동문 회원 중 미주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 - 제 15대 동창회장 (임기 2019.7 - 2021.6)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동창회 정관 및 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훌륭한 후보를 금년12월 31일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전회장, 현회장, 차기회장지역은 제외합니다.

인선위원장 오인환 (제 12대 회장)

제 15대 회장 (2019.7-2021.6)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 선거일정
 - 2016년 12월 31일: 회장 후보 추천서 접수마감
 - 인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복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회보등을 통하여 출마공약을 발표한다.
 - 2017년 6월: 전국평의원의회의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차차기회장 확정
- 근거규정: Nomination Committee (Standing) Rules & Regulations
- 차차기회장 후보는 재미서울대 지역동창회 회장을 역임했거나 혹은 총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 혹은 일반회원 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4조참조)

연락처: 오인환 직전회장(DC) (301-775-3919) ioh0858@comcast.net | 손재욱 현직회장(필라델피아) (267-736-2992) JHaahs@timhaahs.com

윤상래 차기회장(NE) (978-835-0100) yoonsville@aol.com | 민준기(뉴욕회장) (845-270-0451) joonmin1@yahoo.com

김병연(남가주회장) (213-923-0607) byeongk@gmail.com | 이상강(하트랜드회장)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정승규(시카고회장) (773-562-0677) s_jung@att.net

268호 | 2016년 8월

서울대미주동창회보

11



김한신 (인문대 92)

중국 북동지역의 수출항. 만주철도의 시발점이며 러일전쟁의 격전지.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여순감옥이 있는 도시 대련은 19세기 배경 속에 21세기 중국

대련은 중국어로 ‘다롄’이라고 발음하며 요동(랴오둥) 반도 서남쪽 끝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로 고구려의 옛터 요동반도에 자리하고 있다. 천오백년전 고구려의 흔적을 느껴보고 싶었지만 대련 시내에서 그것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근현대사와는 많은 부분 교차하는 도시가 대련이다.

대련은 중국어로 ‘다롄’이라고 발음하며 요동(랴오둥) 반도 서남쪽 끝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로 고구려의 옛터 요동반도에 자리하고 있다. 천오백년전 고구려의 흔적을 느껴보고 싶었지만 대련 시내에서 그것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근현대사와는 많은 부분 교차하는 도시가 대련이다.

삼국간섭으로 의기소침하던 일본이 러시아와 한판 붙은 러일전쟁. 풍전등화였던 대한제국의 운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 전쟁에서 승전한 일본은 승전물로 한반도와 요동반도를 거머쥐었고 대련은 그때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부동항에 대한 집념. 그리고 러일전쟁 패전의 트라우마였는지, 소련은 1945년 일본 철수 이후에도 대련과 여순 지역을 중국에 반환해 주지 않고 1951년까지 직접 관리했다. 참 기구한 역사의 땅이다.

조선족 동포의 아픈 역사
대련에서 만난 동포 사업가의 할아버지



대련(Dalian・大連)

[지도 출처: 구글맵]

와 작은 할아버지들은 독립군, 그리고 중국 공산당 ‘팔로군’ 출신이었다. 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중국 공산당 팔로군에 속해 일본과 싸운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쟁 후 귀향을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중국이 북한을 원조하기 위해 징집하는데 ‘항일 전쟁의 영웅들’을 찾아보니 이미 예편한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들에게도 징집 명령이 나왔다고 한다. 이 형제분들은 ‘일본인과 싸울 수는 있어도 조선인들 간의 전쟁에 갈 수 없다’고 버티다 결국 작은 할아버지들은 한국 전쟁에 (우리가 아는) ‘중공군’으로 참전해, 한 분은 전사하셨다고 한다. ‘무찌르자 오랑캐~’라는 노래의 대상이던 그 ‘중공군’들 중에 동포들의 아픔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니 참, 아픈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품 점포와 뒷골목의 국수 가게
대련으로 향할 때만 해도 기대치가 아주 낮아서 지방 중소도시였겠거니 했다. 그런데 도시 중심가에 솟아있는 마천루들

85명으로 56%의 성원율을 나타냈다. 24일 전야제에는 성낙인(행정 69) 모교 총장의 축사와 이효원(공법 83) 모교 발전기금 상임이사의 발전기금 보고, 신성호(외교 87) 국제협력본부장의 인사말과 발표가 있었다. 박형준(무기재료공학 87) 섭외국장의 재치 있는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전야제는 정선주(간호 68) 동문이 제작한 영상물과 년센스 퀴즈로 흥거움을 더했다.

“

죽석에서 교가 합창
우리는 한 몸 실감”

미주 동문들은 죽석에서 나를 합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우리가 서울대 동문으로서 서로 한 몸임을 느끼게 했다. 다만 참석 동문들의 평균 학번이 60년대 학번이고, 최연소 학번이 11학번이라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독려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됐다.

25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제24차 회의록 인준, 사업 보고, 재무 보고, 모교 발전기금 보고, 동창회 후원회 보고, 감사 보고에 이어 전형위원 선출 등 안건이 논의됐다. 한편 평의원 환영 오찬 때에는 서정화 본회 회장의 영상메시지를 시청했다. 서 회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성공적으로 미국 사회에 정착해 미주동창회의 오늘을 만든 순회장과 전·현직 임원들 그리고 모든 평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회의 종료 후에는 손재욱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조직의 발전은 우리 자신의 발전에서 시작된다”며 “미주 동문들이 서로 격려하며 미국 주류사회에서 활발히 움직일 때 모교와 총동창회가 같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풍스러운 백년 역사의 건물들과 현대식 고층 빌딩들이 조화를 이루는 대련은 아주 ‘역사적’인 도시다. 고대사는 없지만 근현대사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급속도로 발전한 중국의 산업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역사와도 밀접히 연관된 도시다.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 방문기



방문단으로 참석한 이민섭(문리대 59) 수석 부회장(좌)·류연수(농대 67) 부회장(우)

나와 본회 이민섭 부회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서울대총동창회 일행은 미주동창회(회장 손재욱)의 초청으로 제25차 평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6월 24일부터 4일간 진행된 이번 평의원회의는 제13대 미주동창회 본부가 위치한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됐다. 뉴욕과 워싱턴DC 중간쯤에 위치한 필라델피아는 150여 만명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이며, 1774년 7월 4일 자국의 독립선언이 채택된 역사적인 곳이다. 필라델피아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다. 1919년 4월 16일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만세운동 행진이 있었던 곳이며, 당시 이승만·조병옥·임병직 등 수많은 자사들이 독립을 협의하기 위해 드나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총회장소인 더블트리 스위트 호텔에 도착하니 손재욱 회장을 비롯한 미주동창회 임원진이 반갑게 맞아줬다. 이번 평의원회의는 총 평의원 152명 중 49명이 참석했으며, 위임장을 받은 36명을 포함하면 총

이날 환영 만찬에서는 미주동창회에 대한 서정화 회장의 지원금 전달과 표창패·공로패 등의 수여가 있었다.

표창패 봉사 부문은 이수호(보대원 69) 동문이, 참여 부문은 박종수(수의 58) 동문이 받았다. 또한 공로패 수상자는 민준기(섬유공학 59) 뉴욕지부 회장, 송요준(대학원 64) 록키마운틴스지부 회장, 이외인(기계공학 68) 전 뉴잉글랜드지부 회장, 박혜옥(간호 69) 전 남가주지부 회장, 이성우(경영 72) 오하이오지부 회장, 김용주(화학공학 73) 전 시카고지부 회장, 전방남(무역 73) 필라델피아지부 회장, 강창석(의학 75) 조지아지부 회장, 백대현(경제 77) 오레곤지부 회장, 이원섭(임산가공 77) 전 워싱턴주지부 회장, 김주성(농대 83) 전 샌디에고지부 회장, 정경완(지질과학 83) 전 유타지부 회장, 서윤석(의대 62) 전 미주 서울의대 총동창회 회장, 이상우(영문 72) 전 북가주지부 회장 등 14명이다.

한편 이날 만찬 때는 오 준(불문 74) 주유엔대사가 기조 강연자(Keynote Speaker)로 참석해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과 해법에 대해 강연했다.

26일에는 ‘서정화 서울대총동창회장 순회배 골프대회’를 회장인 인근 골프장에서 개최했다. 대회가 끝난 뒤에는 아리수 한식당에서 뒤풀이를 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즐기는 시원한 맥주는 국경을 넘어 동문 간의 친목을 다지는 데 한몫을 했다.

돌아가는 날까지 살뜰히 우리 일행을 챙겨준 순회장과 윤상래(수의 62) 차기 회장, 이진구(임학 60) 9대 회장과 오인환(천문기상 63) 12대 회장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우리 일행의 모든 일정을 친절히 안내해준 허유선(식품영양 83) 동문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글: 류연수 부회장

필라델피아 : 임시총회/강연회



필라델피아 지역 동창회 임시총회가 7월31일 저녁 아리수 식당에서 열렸다. 35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지난 1년동안의 결산보고와 장학활동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최정웅(공대64) 동문을 만장일치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최 신임회장은 “오랜동안 회장직을 고사해 왔는데, 이번에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동문들의 적극적 성원을 부탁했다. 회의 후 식사를 나누며 최종무(상대63) 텀플대 석좌교수의 ‘세계경제, 금융의 최근동향’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 이인영 선교음악회

West Chester 대학 성악과 교수 이인영 (음대87)동문 부부와 필라델피아 매스터 코랄 지휘자 이창호 Oboist 의 트리오가 함께 하는 ‘헝가리 집시선교 후원음악회’가 7월30일 영생교회 제 2 본당에서 열렸다.

이인영 동문의 솔로 ‘내가 주님을’, ‘Passione’ 등이 맑은 소프라노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장내에 울려 퍼지고, 이창호 지휘자의 오보에의 선율과 이 동문의 부군인 Carl Cranmer West Chester 대학 피아노과 교수의 피아노 연주가 멋들어지게 어울어진 음악이 여름밤 청중들의 가슴에 파고 들었다. 이들 트리오가 제작한 ‘주만 바라볼찌라’ CD의 판매수익과 입장료 수입은 헝가리 집시 선교사역에 쓰여질 예정이다.



오레곤 : 피크닉

7월 16일 오레곤 동창회는 여름 피크닉으로 모였습니다. 동문 15분과 식구들이 모여 점심, 저녁식사까지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중간중간 편으로 나눠 축구도 하고, 또 아이들은 받은 선물로 서로 편먹고 물총놀이도 하였습니다. 피크닉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1947년 사대 입학하신 박락순 동문님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오레곤 동창회는 연말 또는 연초에도 모이고 있습니다.

회장 백대현(상대77)



워싱턴주(시애틀)



“배달민족의 기상으로 한국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면서 재능을 조건 없이 기부하는 기조”

33년을 한·미 음악교류와 문화창달에 헌신해온 한인 음악인 부부가 있다. 워싱턴주 음악협회 김무웅 (음대 64)회장과 아내 김경자 고문이다. 모교 음

대를 졸업한 김무웅 회장은 한국에서 어린이들의 아침을 시작하던 KBS 프로그램 ‘딩동댕 7시다’를 만든 음악 해설자이자 음대 교수를 지냈고 경희대 음대 출신의 아내 김경자씨는 KBS합창단(현 국립합창단) 소프라노 단원으로 활약했다.

1983년 제 자녀와 함께 미국 이민을 와 워싱턴주 페더럴 웨이에 터전을 잡고 수산회사를 인수한 이들 부부는 전공으로 생활하진 못했지만 음악을 버릴 순 없었다. 그 래서 찾아간 곳이 워싱턴주 음악협회의 전신인 ‘음악인 동호회’이다. 당시에는 음악 전공자들만의 모임으로 규모가 작았지만 이들 부부의 소명의식이 아마추어 음악 단체를 아우르며 시애틀 한인행사를 빛내주는 37년 역사의 음악단체로 변모시켰다.

김무웅 회장은 “시애틀 음악의 전당(Home of the Seattle Symphony)에서 가을에 열리는 정기음악회는 한 해도 거르지 않아 올해 37회를 맞이하며 매년 봄 자신

음악회 형식으로 ‘열린 음악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자 고문은 현재 아마추어 40~50명으로 구성된 ‘에버그린 코러스’ 단장으로 활약 중이다. 시애틀에서 열리는 모든 한인 음악행사를 주도하고 시애틀 총영사관이 주최하는 6·25 참전용사 보훈병원 위로공연을 한다. 이들 부부는 “한국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페더럴 웨이라는 자부심으로 ‘음악인들의 사랑방’을 만들어왔다”며 “우리 부부는 음악의 국가대표이자 상비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이 미주 투어를 계획하면 빠지지 않는 도시가 시애틀인 것도 이들 부부가 이끄는 워싱턴주 음악협회 덕분이다. 피아니스트 서혜경씨 초청 연주회 3회 개최, 솔리스트 앙상블의 미국 데뷔공연 등이 이들 부부의 작품인 것. 1990년대 중반부터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수제 햄버거 전문점 ‘버거 익스프레스’의 맛만큼 워싱턴주 음악협회 역시 최고 수준의 공연으로 시애틀 한인사회의 자랑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카고 : 한인 문화회관 김윤태 회장

26일 공식 취임한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김윤태 (의대63) 신임회장은 “문화회관의 안정적인 수입을 꾀할 수 있는 재정안정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차세대 영입에도 힘쓰겠다. 7월 말까지 차세대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작년에 문화회관에서 시행하는 바둑 클럽에 가입했다. 그때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문화회관이 앞으로 더욱 더 동포사회

의 즐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화회관을 세우신 분들이 너무도 훌륭한 분들이다.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열정적인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고 문화회관에 동참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윤태 회장은 1972년 시카고로 도미해 방사선 암 치료 전문의로 활동했으며 2012년에는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남가주 : IM 재단

IM Foundation (대표 임낙균 (약대 64))이 설립 후 첫번째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 초청 미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0명의 학생들이 7월 25일 LA 공항에 도착했다. (사진)



전라남도 교육청을 통해 20개 초등학교 6학년생 각 한명씩 선발된 학생들은 임미현 광양백운초등학교 교장과 IM 재단측 박동우 이사장, 최용성 목사의 인솔로 LA에서 두시간 정도 떨어진 Helen-dale에 위치한 재단 본부를 중심으로 일정을 함께 한다. 이들의 가정은 중국 6명, 일본 5명, 필리핀 5명, 베트남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키르기스스탄 1명, 한국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관촌, 다저스 야구경기 참관등 다채로운 미국 실생활 체험을 겪게 될 예정이다. 학생들의 이동에 필요한 차량 확보의 어려움을 전라남도 교육청의 지원으로 해결한 후 소요경비 10만불의 대부분을 감당할 재단 설립자 임낙균 대표는 “미국체험 실습 현장에 온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엔 본인의 꿈이 적혀있다. 우주과학자, 제빵사, 영화배우, 교수등 다양한 꿈을 이루는데 이 기회가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힘들 때는 본인은 가문의 대표, 학교의 대표, 섬의 대표로 마음을 굳건히 하여 뚜렷한 인생의 방향을 세워 글로벌 리더로 사회의 일원이 되길 바란다” 라고 환영과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도착 후 일행은 ‘북창동 순두부(대표 이태로 (법대 50), 전사장 최진석(법대 64))’에서 제공한 식사로 여행의 피로를 달랬다. 이 자리에는 남가주지부 김병연(공대 68)총

남가주 : 법대

지난 7월 9일(토) Los Angeles City에서 약간 북쪽으로 20여 마일 떨어진 Glendale City 채규황(법대 회장, 69) 자택에서 법대 동문들의 모임이 있었다.

법대 동창회는 2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달에는 채규황 회장 자택에서 모임이 있었다. 김병연 (공대 68) 총동창회장은 “법대 동창회가 지난 여러 해 동안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동문들 간에 가족적인 분위기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법대 동창회는 인원수에 비하여 총동창회 참여율도 가장 높아서, 항

상 법대 동문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이 타 단과대학에도 많은 모범이 되고 있고, 이러한 동력은 총동창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6일 Hollywood Bowl 가족의 날 행사에도 많이 참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이기준(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법대 54) 부부, 김생철(법대 54) 부부, 정인환(법대 54), 김영자(고 법대 54 김찬규 동문 부인), 오문성(법대 56) 부부, 이창신(법대 57) 부부, 권혁창(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법대 57) 부부, 강경수(법대 58) 부부, 최진석(법대 64) 부부, 홍세봉(법대 67) 부부, 이서희(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법대 70), 조무상(IT 위원장, 법대 70), 김낙중(법대 83, LA 한국문화원장) 부부, 안재엽(법대 84) 부부 등의 법대 동문 들과 김병연(남가주 총동창회장, 공대 68), 김창신(전 총무국장, 문리대 75) 부부, 홍선

남가주 : 상대

서울상대 남가주지역 동창회(회장 강호석, 경영 81)에서는 2016년 7월 16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하계 골프모임을 개최하였다. 이번 하계 골프모임에는 52학년 동문부터 83학년 동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동문 총 21명이 참가하여 5개팀으로 나누어 열린 토너먼트를 벌였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봄처럼 해변 인근에 위치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은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

께 코스 곳곳에 위치한 드 넓은 호수들이 더위를 식혀주어 경기에 참가한 동문들이 무더위를 느끼지 않고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경기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장타: 윤재호 77학번 / 근접상: 강호석 81학번 / 메달리스트: 강호석 81 / 챔피언: 강병찬 64학번

제1조 1위로 노익장을 과시하신 최고령 참가자인 김형만 동문(상대 52)께서는 특별상이 주어졌다. 골프경기를 마친 동문들은 인근 세리토스 길목 식당에서 조촐한 만

회장, 라철삼(문리대 64)부부, 조무상(법대 70), 홍선례(음대 69), 이원영(문리대 81), 임항균(사대 71), 김종하(인문대 85)등 동문들이 참석해 일행을 환영해 주었다. 이번 행사는 치밀한 계획과 전라남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를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 구경석 장학사, 이완숙 다문화교육 사무관, 임미현 광양백운초 교감이 지난 3월 재단을 방문해 일정을 계획한 바 있다.

이완숙 사무관은 “서울, 경기, 전남의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고 그 자녀들의 적응이 쉽지 않아 교육청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을 고심하다가 임 대표님의 제안을 받고 교육감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움직여 감사한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다.”며 소감인사를 했다.

구경석 장학사는 “전라남도를 비롯해 한국의 학교 현장이나 사회에서 겪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극복하고 이번 경험으로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리더로 성장해 ‘더불어 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홍조(지대 56) 미주총동창회 7대회장을 비롯한 방석훈(농대 55) 상임이사, 임낙균(약대 64) 회장, 서세진(음대 62) 음대회장, 김지영(사대 69) 상임이사, 강신용(사대 83) 전 총무국장, 백옥자(음대) 미주총동창회 조직국장등 동문들도 7월 19일 준비모임을 가지고 구체적인 협조방안을 의논한 바 있다.

례(문화위원장, 음대70) 동문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푸른 나무들과 가로등이 있는 집 뒤 정원은 매우 윤치 있었고, 상쾌한 바람 속에서 동문들은 바베큐를 곁들인 식사를 하였는데, 특히 며칠 전에 채규황 회장 집에서 직접 담근 개장 맛은 정말 꿀 맛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였다. 동문들은 와인을 나누며 동창회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등으로 담소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잔을 곁한 친목의 시간을 나누었다. 서울상대 남가주지역 동창회에서는 매년 춘계, 하계, 추계 골프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글: 송두일(상대 81) 상대 부회장



북가주 : 글로벌 어린이 재단 총회

7월 9일 LA 옥스포드 팰레스 호텔에서 제가 이사로 있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 18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재단은 미국내에 20여개 지부를 가진 비영리법인(globalchildren.org)으로 5,000여명의 회원으로부터의 매달 10불씩의 후원금으로 전세계의 어린이를 도와주고 있으며 내년에도 \$260,000을 배고픈 어린이들을 도와주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 전 UN 대사를 지내신 김 숙 (사회학과 70) 대사님께서 Keynote Speaker로 “한국에 IMF가 터졌던 1998년에 미국의 어머니들이 고국의 배고픈 어린이들을 먹이자고 매달 \$10씩 내어 한국의 어린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세계의 배고픈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에 감명받으셨다”는 취지의 말씀과 “어머니들의 힘은 위대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셨습니다.

(사진의앞줄 오른쪽 2번째가 김 숙 대사님, 뒷줄 오른쪽 2번째가 임희례 북가주 총동창회장)



샌디에고 : ‘Bread of Life’ 봉사



7월 16일 (토) 우리 샌디에고 동문회 지역봉사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문상 (공대 62) 의 올해 두 번째 공식 봉사활동 (첫번째는 1월에 있었던 노인 건강교실입니다)이 Oceanside에 있는 Bread of Life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의 동문/동문 가족분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김인근(공대 59)/김경자(음대 62), 이문상(공대 62), 심상철(공대 81)/심미리, 최흥수(자연대 87), 박상률(자연대 91)/ 박서준/박혜준)

Bread of Life 는 1999년에 설립되어 Oceanside, Vista, San Marcos, Carlsbad, Escondido, Encinitas 6개 지역의 극빈자 또는 노숙자들을 포함하여 한달에 대략 15,0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자선단체입니다. 또한, 수십명의 노숙자들에게 4개월씩 잠자리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숙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grocery store및 개인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식료품들을 기부받고 있는데, 저희 참석자들 몇몇이 한 일은 무작위로 섞여있는 식료품들을 세부 항목 (Pasta & Dry food, breakfast items, beans/vegi cans, soups, fruit cans, deserts, condiments 등) 으로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Bread of Life에서 식료품을 나누어 주기가 훨씬 빠르고 수월하다고 합니다. 식료품 캔들이 많이 들어있는 무거운 상자들을 내려서 분류하고 다시 올리느라

땀도 나기도 했으나 보람있는 일이라 참석 동문 모두들 즐겁게 잘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일부 동문들이 실내에서 식료품 분류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동문들/가족들은 바깥에서 Bread of Life 건물 입구에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서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을 깔끔하게 페인팅을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뜨거운 토요일 아침임에도 심상철(공대 81)/심미리 내외분과 박상률(자연대 91)/서준/혜준 가족은 건물 바깥의 ~ 1.5m x 60m 정도의 바닥을 회색으로 다시 도색하였습니다. 낡아서 벗겨진 페인트와 검자국, 얼룩들을 벗겨내고, 청소를 한 후에 준비해 주신 롤러와 페인트로 깨끗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꽤 길고도 오래 걸릴 것 같았던 일이었지만 서로 돕고 돌아가면서 일한 덕분에 2시간여 만에 끝내고, 심상철 동문 내외분께서 준비해주신 베이글과 시원한 오렌지를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는 보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지역봉사 행사를 잘 arrange 해주신 심상철(공대 81) 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동문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샌디에고 동문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역봉사행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최흥수 회장(자연대 87)/박상률(자연대 91)
사진: 심상철(공대 81)/박상률(자연대 91)

샌디에고 : 캠핑 / Stargazing

동문회 캠핑/stargazing 행사가 7월 30일 (토) Dos Picos Park에서 있었습니다. 행사 후기를 보내드립니다 (후기 초안작성: 성혜승 (사회대 99), 편집: 최흥수 (자연대 87), 사진촬영: 최흥수, 김주성 (농대 83)).

이번 행사에는 아래 총 26명의 동문(초청생략) 및 배우자/가족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창섭 (공대 57)/이미자, 손창욱 (공대 65)/손정혜, 이혜숙 (사범대 68)/노한상, 박상호 (치대 80)/최영희, 서정용 (공대 81), 김주성 (농대 83)/진승희/김기현, 임용갑 (공대 84), 이정석 (공대 87), 최흥수 (자연대 87), 오중호 (공대 90)/전경희/오예림, 권성근 (의대 90)/ 홍근희/권형진/권지윤, 이인태 (공대 94)/정재은, 박성주 (인문대 95), 성혜승 (사회대 99)

행사날인 토요일은 하루 종일 더웠고 부분적으로 흐릴 예상이었습니다. 다행히 별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더운 날씨를 고려하여 시작 시간이 5시 반으로 늦춰졌고 약 6시 정도부터 본격적

으로 동문들이 모여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각자 준비한 음식들로 저녁식사를 한 뒤 해가 지길 기다리며 stargazing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최흥수 회장께서 참석한 동문들이 지참한 소형 플래쉬라이트에 빨간색 셀룰로 판지를 덮어서 천체 관측용 red flashlight를 만들어 주었고, stargazing event package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미리 준비된 Star Wars 음악과 함께 기다리던 별자리로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최흥수 회장께서 우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잠깐 이야기 한후에 별자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최 회장께서 레이저 포인터로 밤하늘의 별자리들을 가르키며 많은 별자리들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동문들은 일단 가장 잘 보이는 북두칠성과 거문고 자리 (직녀자리)의 Vega를 찾을 수 있었고 작은곰 자리 및 북극성, 목동자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용자리,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독고래자리, 왕관자리, 궁수자리, 전갈자리, 뱀주인자리, 헤라클레스자리 등을 직접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별자리 공부 후에는 최 회장의 망원경으로 토성, 화성, 궁수 자리의 산개 성단 (M7), 거문고 자리의 고리 성운 (M57), 백조자리의 이중성 알비리오, 헤라클레스자리의

샌디에고 동문회 회장 최흥수 드림



원 고 모 집 합 니 다

9월호 특집으로 '아이들 이야기'를 모집합니다. 남의 아이 이야기는 돈을 받고 들어준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공짜로 여러분의 자녀, 손주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웃게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에피소드)를 50 단어 정도로 들려주세요. 이 외에도 일반 원고 -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철학, 역사, 문학

등, 다양한 분야로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500 단어(글자수 2000자) 내의 글과 필자 사진 한장(고화질)을 보내주세요. '이달의 사진'과 '서울대 학창시절의 사진'도 보내주세요. 앨범 사진을 스캔하든가, 셀폰(고화질)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고 동창회에 대한 질문이나, 주소정정, 회비/후원금 등의 사무적인 일은 general@snuaa.org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현정 개인전 : “Kings” I have a dream. 작품을 통해 찾는 자신의 가치



Montclair 주립대 교수와 조각가로서 후학양성에 힘쓰며, 미국과 한국 등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조각가 김현정(미대 94) 동문의 개인전이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맨하탄 첼시에 위치한 스페이스인아트 뉴욕(SIA NY)갤러리에서 열렸다.

김현정 작가는 각각의 존재가 가진 소중한 가치, 그리고 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기에 간과되고 있는 창조의 이유를 환기시켜주는 매개체로서의 작업에 가장 중점을 두며 활동하고 있다. 또한,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여 그 현상과 성격을 통하여 존재를 인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며, 작가의 작업이 단순히 객관적이고 중성적인 존재의 탐색이 아닌 존재에 대한 연결의 맥락에서 작

업했다고 말한다.

이번에 전시될 금과 은, 진주, 그리고 각종 보석들로 장식된 화려한 왕관들은 그것을 착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어 줄 것이다. 따라서 김현정 작가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한 테마에 따라 제작된 왕관 속에서 관람객들이 본인에게 주어진, 혹은 미래에 주어지게 될 소중한 가치에 맞는 왕관을 찾아 착용해 봄으로써 본인만의 가치를 되새기고 격려하는 기회가 되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는 김현정 작가가 오랜 시간 동안 소중한 가치를 담아 발전시켜 온 작가만의 고유하고도 특별한 작품세계를 뉴욕 맨하탄의 첼시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김 동문의 시부 정낙섭 박사 (의대60 졸) 역시 서울대 동문으로 김 동문은 전시회에 앞서 다음의 인사를 보내왔다.



박영구 개인전 : 생명력과 영혼을 보는 듯한



터의 초대로 7월16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전시회에는 총 66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김치를 소재로 해서 화제가 되었던 박 동문은, 이번에 작품의 역사성과 김치의 조형적 관심을 특유의 색상으로 표현한 화면구성뿐만 아니라 식물의 생명력과 영혼을 보는 듯한 환상을 자아내는 소품들을 선 보이고 있다. 주로 나무의 몸통들과 그에 연결된 가지들이 마치 여러 인간 군상들을 표현해 주는 듯 하며 어떤 작품은 꽃밭의 여러 이미지, 그리고 식물에 있는 풍경을 연상시키는 작품들도 눈에 띈다.

지난 개인전 작품과는 다소 다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는 작품들이 구성적인 작품과 추상이 확



연하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범주에 있을 수 있으며 그래서 더욱 관람객들이 추상을 쉽게 이해하고 다가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박 동문은 모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 주립대 풀러튼과 롱비치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대표 엘렌안)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고 이번 가을에 6회 전시를 계획하고 있는 한미 커뮤니티 미술가협회 고문을 맡고 있고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김병연) 문화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게시판	
앞으로 있을 동창회/동문들의 행사/소식을 미리 알립니다.	
남가주	
	코랄단원 모집 남가주 동창회 코랄이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나성영락교회에서 연습하고 있는 코랄은 금년 10월15일 Colburn School Zipper Hall에서의 정기연주회가 예정되어 있다. 연락: 장진영 지휘자 818-307-7059 / 강정자 단장 310-801-4260
	홍선에 미술전 남가주 미대동창회 전 회장 홍선에 동문의 개인전이 'Cosmetic Dream, 우주의 꿈' 이라는 이름으로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 7 전시실에서 열리게 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뉴욕	
	동창회 정기 이사회 및 총회 뉴욕 지역 동창회 정기 이사회 및 총회가 포트리 품림 한식당에서 8월 18일 개최된다. 문의: 917-207-5949
서울	
	골프대회 제 12회 모교 동문골프대회가 9월 4일 용인 플라자 CC에서 열린다. 미주동창회 단체티나 미주동문들의 참가를 희망하고 있다. 일인당 참가비 26만원은 미주동문들에게는 무료이다. 문의:서울대학교총동창회 02-879-8204 (담당자) jang9869@hanmail.net

朋

봉우(朋友)는 뜻을 같이하는 벗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봉(朋)이나 우(友)는 모두 벗이라는 뜻이지만, 봉(朋)은 나이와 관계가 없이 류(類)가 같은 것을 말하고, 우(友)는 나이가 같은 또래의 동료를 말합니다.



자랑스런 내 친구 Mr. Korea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이 있었다. 그는 부모로부터 도움 없이 東家食西家宿 하면서 공부했다. 나도 가정교사로 집을 떠나 살던 처지라서였는지 더욱 친해졌다.

나는 집안 사정으로 대학을 포기하고 공부를 게을리하다가 턱길이로 겨우 공대에 들어갔지만 그 친구는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Mr. Korea 까지 되었다. 어느 친구에게 “나도 미스터 코리아에 한번 나가볼까?” 라고 농담했을 때 “네가 되면 한국 남성의 수치다. 임마.” 라는 말을 듣고 道場에 나가 피땀을 흘렸던 것이다.

미국 유학 오면서 그 친구의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다. 미스터 코리아 선발 대회에서 찍은 사진이다. 친구들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친구의 사진이다. 이 사진은 마음이 약한 나를 계속 채찍질해 온 座右銘이었던 것이다. (마음도 넓은 친구라서 신상의 이야기를 썼다고 나무라지 않을 줄 믿는다.) 장응복 (공대 58)

보고싶다 친구야



이 없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같은 어려운 환경 탓에 늘 위축된 표정들이었지만 책들을 많이 읽어서인지 마음 속은 밝고 생각이 깊기 그지 없었던 둘은 나보다 어려운 입장임에도 도리어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 주곤 했었다. 이 두 친구에 대한 추억은 그 후 내가 쓴 단편 “딸구와 공여사” 에서 딸구의 캐릭터의 골격이 되었다.

보고 싶다, 두 친구야! 지금 너희 둘을 만난다면 소주 한잔 하면서 많은 칭찬과 격의를 표하고 싶구나(π) 이석호 (공대 66)



1966년 7월, 지리산 화엄사

보고 싶다, 친구야!

1965년에 15명이 입학을 하였고, 1969년에 9명이 졸업을 하였지. 4년 동안, 봄 가을의 野外실습, 여름방학 중의 海洋생물 실습으로 소백산, 설악산, 지리산, 태백산, 강화도, 돌산도 등등을 두루 다녔지.

열악한 3등 열차, 우거진 숲, 넘실 거리는 파도, 밤하늘의 별빛을 함께 보았지.

우리만큼 가까웠던 科 친구들이 또 있을까?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지금,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다시 한번 모여서 또다시 그렇게 지내보고 싶구나, 植物學科 친구들아! 이상봉 (문리대 65)



60년대에 UCLA에서 만난 친구

60년대에 UCLA에서 공부했던 한인 유학생들은 이 친구를 거의 모두 기억할 것이며 나 또한 잊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 거의 50년전 LA공항으로 유학오는 나를 Pick Up하러 나와서가 아니라 나와 고등학교 동기인 그는 참 특이한 친구였다.

나보다 4년 먼저 유학와서 10년이란 세월을 UCLA교정에서 생활하면서 박사학위를 마친 끈질긴 친구였으며 상상 외로 그당시 그는 LOS ANGELES 생활이 4년이나 지났어도 자전거가 그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였다. 나를 LA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그의 친구 차를 같이 타고 나와서 나를 맞이했었다. 그는 주말이면 자일을 어깨에 메고 항상 일행을 리드하며 험한 산을 오르내리던 산의 사나이였다.

나는 그 친구가 추우나 더우나 양말신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지금도 맨발에 운동화신고 자전거타고 UCLA CAMPUS를 누비고 다니던 그의 모습이 선하다. 자기는 마지막 삶을 산에서 보내겠다던 그가 교통사고로 이 세상에 없어서 더욱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 한효동 (공대 58)

友

친구야, 보고싶다
언제나 정다운 나의 고향, 강원도 횡성의 산골마을을 떠나
서울로 전학온 다음 해의 일이었습니다.

시골 촌뜨기가 겪은 서울쇼크는 말할 것도 없었지요.
여름 방학을 하고, 정든 교실에 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 교실 뒤편에는 의례 학생들의 솜씨를 자랑하는 그림이나
작문 등의 작품들을 게시한 "우리들의 솜씨란" 이 있게 마련이었지요.

저는 게시판 가득히 붙어 있는 친구들의 편지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 제목들은 한결같이
“서울로 전학간 그리운 병학에게” 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나는 마음이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내가 서울에서의 Culture Shock를 딛고 어렵게나마 적응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격려해 준 다정한 나의
친구들의 쓴 따뜻한 마음과, 고향 분들이 보여 준 훈훈한 격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보고 싶고 그리운 나의 옛 친구들입니다.
정병혁 (농대 70, 자서전에서)

그리운 친구

영정사진에서
친구는 하얀 안경을 쓰고 있었다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꽃무늬 상자 속에 누워
기타를 치고 있었다
*유어 치팅 하아트,
유어 치팅 하아트,
귀에 익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비 한 마리가 어디론가 날아갔다

2월 첫 날
병아리들은 먹이를 찾아 헤매고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내렸다
보라색,오렌지색 편지가 뿌려지고 있었다
낮선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천사들이 치는 박수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한없이 흐르는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뿌연 안개 속에서
뒤돌아 보며
자꾸만 뒤돌아 보며
분명히 그가 쓸쓸히 떠나가고 있었다

*Hank Williams Jr.의 노래 'Your Cheating Heart'

고 이훈영 李欣永(상대 61년 입학) 통계학 박사를 보내면서
2013년 2월 1일 서윤석 (의대 62)

그를 보고 싶어하는 오랜 친구들
김신행(법대 61)경제학 교수
장기일(공대 61)박사,
고병걸(공대 61)박사
송인서(고대 62년 입학)사학과 교수
와 많은 국내의 친구들.



그를 보고 싶어하는 오랜 친구들

[신간]

시가 있는 경제학



윤기향 (법대 65)

『시가 있는 경제학』은 미국 FAU 경제학과 종신교수이자 올해의 교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윤기향 교수 (법대65, 현 플로리다 지부 회장)가 세상과 돈의 흐름을 꿰뚫는 아주 특별한 경제 독법을 소개한다.

정통 경제학을 다루고 있지만 난해한 경제학을 시와 접목함으로써 감성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경제이론을 체계적으로 다루면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경제 현실도 풍부하게 활용하였다. 이로써 개념은 알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았던 경제이론을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보면서 올바른 경제활동을 설계하는 밑거름을 제시해준다.

책에는 28편의 시가 소개되어 있다. 구미의 영문시들은 물론, 한국시와 중국시, 일본시 등도 다룬다. 시뿐만 아니라 소설, 신화, 그림, 영화 등 다양한 인문학 콘텐츠를 종합무진하며 숨어 있는 경제 원리를 입체적으로 되살려내고, 삶의 가치와 연결된 삶이 있는 경제 지식을 제공한다. 숫자와 통계 뒤에 가려진 먹고 노동하며 소비하는 현실 경제의 민낯을 생생히 보여준다. 책은 경제학에 시를 접목함으로써 그동안 경제학에 걸어놓았던 높은 빗장을 풀고 독자들을 경제학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다.

우리는 매일 경제 문제와 맞부딪힌다. 사소하게는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보다 복잡하게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매순간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경제적 의미에서 항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이다. 이 책은 일반 독자들을 위한 경제학 안내서이다. 독자들이 경제 문제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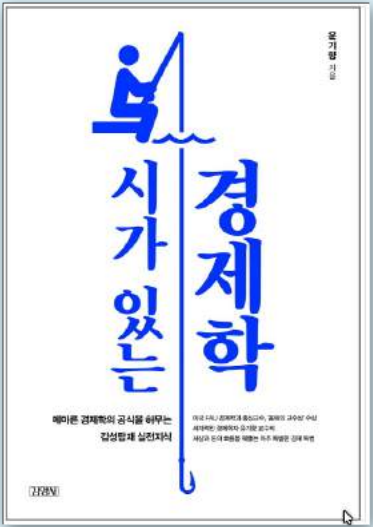
그러나 《시가 있는 경제학》은 경제학을 시에 접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경

제학 책들의 형식과 틀을 과감히 파괴한다. 정통 경제학을 다루지만 시의 향연이 펼쳐진다. 사회과학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학문으로 알려진 경제학에 일반 독자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경제학을 딱딱한 논리의 언어가 아니라 말랑말랑한 감성의 언어로 이야기한다. 기존의 경제학 책들이 배경음악 없이 대사만 나오는 영화라면 이 책은 배경음악이 흐르는 영화와 같다.

왜 소득불평등이 발생했는가? 재산의 불평등한 분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재산은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는가? 극단적 평등주의자들은 ‘흙진 결과’라고 대답한다. 미국의 시인이요 폴리처상을 세 번이나 수상한 칼 샌드버그는 그의 시 〈민중, 오 예〉에서 이러한 생각을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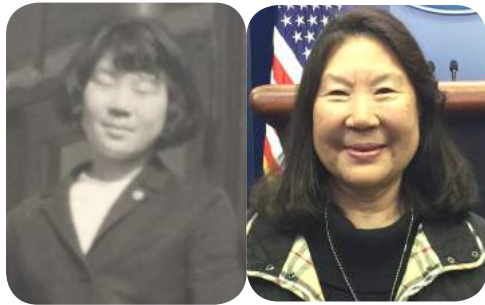
“이 땅에서 나가주세요.” “무슨 이유로?” “그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요.” “당신은 어디서 그것을 얻었소?” “나의 아버지로부터요.”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서 그것을 얻었소?” “그의 아버지로부터요.” “그는 어디서 그것을 얻었소?” “그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소.” “그렇다면, 나도 이 땅을 갖기 위해 당신과 싸우겠소.” _p.262 〈소득분배와 톨스주의〉

시에는 생각의 힘이 농축되어 있고 언어의 힘이 압축되어 있다. 시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동은 사람을 미지의 세계로 끌어들이다. 이 책은 경제학을 시에 접목함으로써 그동안 경제학에 걸어놓았던 높은 빗장을 풀고 독자들을 경제학의 세계로 끌어들이다. 경제학을 ‘시’라는 감성의 언어로 설명하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하는 즐거운 충격을 주어, ‘음울한 학문(dismal science)’으로 불리는 경제학을 유쾌한 학문으로 승화시킨다.



My Story & Your History

1. 간단한 동문님 소개와 이민동기
2. 동문님의 인생에 가장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나 삶의 철학, 좌우명 ?
3. 미국의 첫인상이나, 동문님께서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4. My Favorite Things : 책 음악 영화 음식 사람 장소 등등
5. 동문님이 자랑하고 싶은 특별 건강관리 비법은?
6. 만일 과거 서울대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하고픈 일이나 미래의 Bucket list?
7. 서울대 미주동창회와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의견



안선미 (DC, 농대 65)

1. 이제껏 My Story & Your Story를 쓰신 분들은 모두 대단하신 분들이라 나는 감히 나눌 Story가 없다. 평범 이하의 삶인데도 나에게겐 버거운 여정이었다. 농가정학과와 농화학과를 졸업한 후 본교 가정대 식품영양학과 조교를 지낸 후 지방 초급대학의 전임강사를 하다 University of Florida에서 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을 공부했다.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Advanced Degree는 없었지만, FDA,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에서 근무하다 2013년에 은퇴하였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안에 자리잡고 있는 서울대의 Spirit이 나를 지켜준 것 같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서울대인의 긍지는 힘든 때 나의 버팀목이었다. 서울대인이었음에 감사한다.

2.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며,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돕고 싶다. 나로 인해 마음에 상처받는 이가 없도록 언행을 절제하려고 노력한다. 하루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고 싶다.

3. 김포 공항을 떠나 Honolulu, Hawaii에서 미국 입국 수속을 마치고 Los Angeles에 도착했다.마중나온다는 친구가 보이지 않아 전화를 하려니 제대로 되지 않는다. 마침 KAL로 도착했기에 한국분들이 제법 많았다.

한 젊은 한국분에게 공중전화 좀 걸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분이 몇 번씩 동전을 전화기에 넣다 뺐다를 하더니 안된다고 떠났다. 할 수 없이 땀리는 마음으로 전화걸기를 시도하여 간신히 친구와 연결이 됐는데, 그 친구는 내가 다음 날 온다고 알고 있었다.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의 일상생활에 익숙지 않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한국교민들의 생활 모

습에 놀랐다. LA에서 Atlanta, GA를 거쳐 Gainesville, FL공항에 내리니, 어릴 때 시골 장터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기둥 위에 함석 지붕만 있는 구조물 (벽도 창문도 없는) 의 Conveyor belt위에서 내 가방을 내리면서 내가 정말 미국에 왔나하고 의심했다. 근사한 김포공항과는 달리 대합실도 없는 허허 별판의 시골 공항에서 나는 Florida 특유의 습한 열기가 나의 숨통을 막 막는 답답함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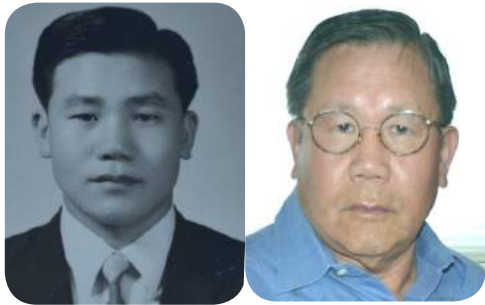
4. 어릴 때 나는 소설보다 백과사전 읽는 것을 좋아했다. 지금도 non fiction을 좋아한다. World Heritage Sites, Nature, Museum 등을 소개하는 documentary film을 좋아한다. 세상에는 너무 궁금한 것들, 가 보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여행은 이런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각 지역의 고유 음식, 의상, 미술, 건축물을 대할 때마다 그들이 있게된 그 지역의 문화, 종교, 지형, 관습, 기후 등을 생각한다.

5.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실행하지 못해 안타깝고 부끄럽다.

6. 데모, 휴강, 휴교, 기자통학, 가정교사 등으로 제대로 해보지 못한 공부할 수 있을까?

같이 동행할 친구가 있다면, Camino de Santiago Walks를 해보고싶다. 순례자가 아니라도 내 인생 여정에서, 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며, 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7. 평의원의회로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회원들도 참석할 수 있는 총 동창회 모임으로 했으면 합니다. 총회 형식으로 하면서, 평의원회, Brain Network을 함께 한다면, 미주 동창들이 미주총동창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 (PA, 문리대 65)

1. 文理大 植物學科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서울시내 교육기관에서 生物學을 가르치다가 1979년에 미국으로 이주. Ross Co, Digilog Co, Bell Institute 를 거쳐, La Salle 대학원에서 Ph. D를 받고나서, Classical Philosophy(古典 哲學)을 가르치는 한편, Philosopher, Poet & Writer로 미국內의 여러 신문과 잡지에 Contributor로 활동해 오고 있음. 저서로는 학술논문 60여편, 詩集, Essay 作品集, 명상 Texts 등이 있음.

‘미국 이민 동기’? 미국 國旗(The Star-Spangled Banner)가 보기가 좋아서! 그리고 한국에서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어 보이는’ 영어를 ‘좀더 쉽게, 저저, 배워 보려는 생각’에서, 미국으로 왔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고, 평생을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중인.

2. “오직, 네 길(Your Way)을 가라!” 이 존재계가 제 아무리 방대하다고 해도... 그대는 오직 하나 뿐인 One and Only (唯一無二한 存在)일 뿐이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많은 수의 모래알이 있다고 해도, 그 중에 똑같은 모래알은 있을 수가 없듯이 그대가 태어나기 前에도 그대와 똑같은 사람은 없었고, 그대가 떠나나 後에도 그대와 똑같은 사람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 자신의 길을 가고, 그대 자신의 삶을 살라!

그렇다면 제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고 해도 결국은 남(他人)일 뿐이다. 따라서, 그 누군가의 가르침을 참고로 할 필요는 있겠으나, 그를 따르거나 흉내낼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흉내 내는 것으로 그대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마시라!

3. 역사에 있어서 ‘만약에...’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이라는 공상은 아예 해보지도 않고 살아오고 있음.

4. 나는 ‘영화, T.V 극, 연속극, 만화’라는 것은 거의 보지 않는 사람이다. 물론 나도 한 때에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던 때에는 영화를 본 적이 있지만 영화라는 것을 보지 않은 기간이 아주 오래되었다. 20여년 동안에 1-2편 정도의 영화를 본 것이 전부일 뿐이다. 그 반면에 책이나 Classic 음악은 늘 가까이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는 책이나 음악을 권하지는 않는다.

5. ‘나만의 건강관리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 누구나 다 다닌다는 Fitness Club나 Gymnasium 이라는 곳엘 가본 적도 없고, Tennis 나 Golf를 쳐본 것도 수십년이 넘었다. 현재 별다른 운동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나보다 10-15년 정도 젊은 사람들 10명과 함께 N.Y산에 등산은 자주 가고 있다. 남들보다 病弱하다고 느낀 적이 없이 살아오고 있는 셈이다.

6. 서울대 학생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나는 남들 못지 않게 학교를 다닌 기간도 길었고, 또 한 專攻으로 생물학, 전자공학, 철학을 하여서 그런지... 학교에 대한 미련은 더 이상 없는 셈이다.

Bucket list 라? 2013년의 정년퇴직 이후에는, 몇 군데의 신문과 잡지에 고정칼럼을 맡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7. 뭘니 뭘니 해도... 동창회의 첫번째 역할은 ‘동문 간의 친목과 유대 관계 형성’일 것입니다

그러니, 동문 여러분! 그러한 면에다 역점을 두도록 하십시오!

[팝 컨서트 탐방기]

서정성 넘치는 시원 청량 락사운드에 흠뻑

초 장수 슈퍼밴드 ‘JOURNEY’



양지훈 (상대 91)

들...”)를 멈추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멍하게 라디오를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시원하고 짙 찬 메이저 하모니 코드 위를 수놓는 흥겹고도 영롱한 일렉 기타 리프, 드라마틱한 풀다운 글리시드 도에 이어 등장한 락 트인 하이톤의 리드보컬. 오... 이 건 뭐지...!! 그야말로 시원한 청량음료와 같은 그런 느낌의... 공부에 찌들어 척박한 중학시절의 매마른 가슴을 흠뻑 적셔주는, 가슴의 단비와도 같은 음악이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제 레이디팡에 들어 왔던 밴드 저니의 음악, 뭔가 더 없을까 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기다리던 차, (당근 인터넷이 없던 시절, 관심 가는 밴드가 있어도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고, 라디오에서 뭔가 나와 주길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던 때였죠.) 이듬해 1986년 봄, 당시 주말마다 열심히 챙겨 들던 AFKN(주한미군방송)의 빌보드 순위 방송에서 이들의 신곡 ‘Be Good to Yourself’가 마침내 소개되었고, 역시 기대를 전혀 저버리지 않는, 마치 믹서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킥왕짱 초 시원 락 사운드에 저는 뿔 듯이 기쁜 맘으로 ‘오 예~’를 연발 외치며, 공부보다 말고 방에서 별땃 일어나 열심히 헤드뱅잉을 해대었더랬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팝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활동 중인 초장수 슈퍼 밴드 저니의 탄생기는 자그마치 197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많은 장수 밴드 역사가 그렇듯, 수많은 멤버들이 이 밴드를 거쳐 갔죠. (거쳐간 모든 멤버의 수를 다 합치면 자그마치 21명!) 이 중 이 그룹을 아메리칸 팝락 밴드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3명의 핵심 멤버가 있으니, 바로 닐 손(Neal Schon, 기타), 조나단 케인(Jonathan Cain, 키보드),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스티브 페리(Steve Perry, 보컬)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 멤버는 기타리스트 ‘닐’인데요. 퓨전 락 밴드의 살아있는 전설, ‘산타나’(Santana) 출신으로 1973년에 그룹 저니를 결성한 원년 멤버이자,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밴드를 떠난 적이 없는 유일한 멤버이기도 하죠. 이들을 발굴해 계약한 레코더사 콜롬비아는 3집까지의 앨범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 간판 보컬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를 통해 스티브 페리가 조인하게 되며 밴드 ‘저니’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환상적인 하이톤 보컬 능력뿐만 아니라, 탁월한 대중적 감각의 작곡 능력까지 보유한 그는 닐과 함께 ‘Lights’란 곡을 작곡, 발표하는데, 이 곡은 ‘Wheels In The Sky’와 함께 빌보드 싱글 차트 100위권 내로 진입하며 밴드 최초의 전국구 히트곡이 됩니다.

스티브 페리라는 엄청난 엔진을 새롭게 장착한 저니는, 이후 발표한 두 장의 앨범 ‘Evolution’(1979), ‘Departure’(1980)에서도 스티브 & 닐 콤비 작곡의 팝 느

낌 물씬 나는 히트곡들을 계속 터뜨리게 되고, 그 이후 또 한명의 대중적 감각 총만한 송라이터 키보드니스트, 조나단 케인까지 밴드에 영입하면서 향후 이 밴드를 수십년간 전국구로 자리 잡게 하는 Don’t Stop Believing’, ‘Open Arms’(1981년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 6주간 머뎀)와 같은, 미국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노래들을 마구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 화려하진 않지만 선이 굵은 조나단의 키보드 라인인 밴드의 락 사운드에 서정성을 부여하며 저니의 음악을 다른 락밴드의 사운드와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7집 ‘Escape’ 앨범 자켓

2011년 제가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되어 드디어 밴드 저니의 공연이 할리웃 보울에서 열린 다는 소식을 듣고는 150불이라는 적지 않은 거금을 들여 테라스 티켓을 샀죠. 30년 동안 즐겨 들어왔던 밴드의 명곡들을 라이브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흥분 이외에도 또 하나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스티브 페리’처럼 노래할 수 있다는 재능 하나만으로 필리핀에서 건너와 초특급 밴드의 리드보컬 자리를 하루아침에 꿰찬 행운아, 아녜의 보컬이 40년 장수밴드의 퍼포먼스 속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여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Separate Ways’와 함께 오프닝을 연 그들의 등장! 그리고 화제의 풍운아, 아녜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시작하자 관중들은 ‘Oh my god! He’s good!’을 연발하며 그의 보컬 실력과



저니 주요 3인방. 왼쪽부터 스티브 페리, 조나단 케인, 닐 손. 출처 cbslocal.com

밴드의 (당연히) 멋진 연주에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보컬은 정말 스티브 페리의 전성기 목소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고, 눈만 살짝 감았다 다시 뜨면 마치 거기에 스티브 페리가 서서 노래하고 있을 것만 같을 정도였죠.

위대한 보컬보다 더욱 위대한 건 노래 자체의 힘이 있습니다. 공연의 후반부에 접어들며 조나단의 영롱한 키보드 전주와 함께 이 밴드의 최고 히트곡, ‘Open Arms’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일제히 별땃 일어나 환호와 함께 싱얼롱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역대 히트곡들로 분위기가 후끈 달궈진 후, 예상대로 공연의 피날레로 ‘Don’t Stop Believing’이 연주되며 할리웃 보울 공연이 자랑하는 ‘불꽃 쇼’가 시작되었죠. 게다가 장대에 가득 휘날린 종이 폭죽까지... 국민밴드 ‘저니’의 화려한 공연의 대미는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녜의 리드보컬 영입으로 인해 적지 않은 수의 인종 차별 성향을 가진 팬들이 떠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저널리스트의 바보같은 질문에 대해 남긴 조나단의 아래와 같은 짧고도 멋진 대답을 보며, 이 밴드의 멋진 홍보는 계속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는데요.

“We’ve become a world band. We’re international now. We’re not about one colour any more.”

젊은(?) 새 리드보컬 아녜를 제외하고는 멤버 대부분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라이브 공연, 새 앨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슈퍼 밴드 ‘Journey’의 멋진 여정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Live long and prosper, JOURNEY !!



할리웃 보울 컨서트 장면.

[영화]

The Greatest -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지종근 (농대 56)

“The Greatest” (1977) 영화는 Tom Gries가 감독하고 Mohammad Ali 가 직접 출연하고 링안에서 박진과 흥분을 자극시키는 권투 장면, 흑인 인권운동,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은 다큐멘터리처럼 편집되어 영화 상영 동안은 물론 상영 끝난 후에도 깊은 여운을 남겼다.

2016년 6월 3일 세계인의 애도 속에 서거한 알리 모하메드는 누구며? 왜 세계인들이 애도하는가? 1942년 캔터키주 주이빈에리에서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는 1960년 올림픽대회에서 미국대표로 18세에 출전해 라이트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금메달을 달고 다니며 자랑하고 다녔다.

그러나 우연히 백인 식당에 갔다가 “검둥이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불량배들에게 금메달을 뺏앗길 뻔한 일을 당하고, 이들을 격퇴시키고 난 후 울분으로 강다리에 가서 강물에 금메달을 던지고 더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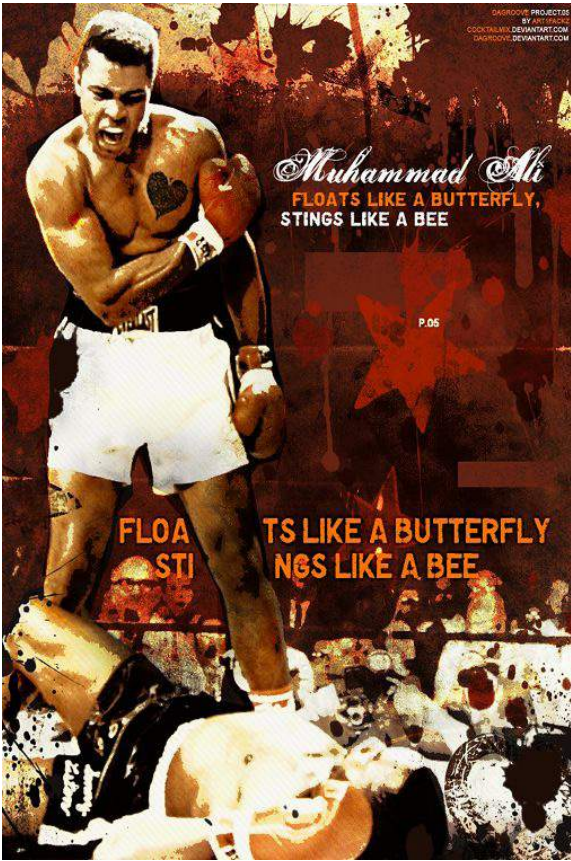
검둥이로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프로로 전향하고 인권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프로 전향 후 무슬렘으로 전향하며 그의 이름을 알리 모하메드(MOHAMMED ALI)로 변경하고 적극적으로 인권운동을 하였다.

1964년 해성처럼 나타난 22살의 캐슈어 (알리의 전 이름)는 당시 최강자 참피언 ‘리스턴’에게 도전장을 내면서 그의 특기인 떠벌이로 상대방에게 육설과 한 방에 날리겠다는 등으로 상대방을 자극시키고 출전하여 세상 언론의 예측을 뒤엎고 8회에 KO로 승리한 후 61전 56승(36KO)으로 복서의 삶을 마쳤다.

그는 1메타 90센티의 큰 키로 빠른 발놀림과 실세 없이 퍼붓는 컴비네이션 블로와 상대방 공격함에 그 빈 틈을 찌르는 카운터 펀치로 상대를 물리쳤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중 “베트공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데 왜 내가 베트남 사람을 죽이러 가느냐”고 입대를 거부해 세계 참피언 타이틀을 박탈당하고 난 후 법정 투쟁을 하여 1970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세월은 흘러 30대에 링에 다시 올라가서는 참패를 당했다. 그러나 그는 도전 정신으로 훈련을 하고 이내로 머리로 작전을 변경하여 26살의 무적의 챔피언에게 도전해 8회까지 맞아가며 방어만 하면서 상대방 기력을 뺏 후 8회에 사력을 다한 한방의 펀치로 KO 승 하였다. 이 멋진 장면은 나에게는 도전의 정신을 주는 교훈이었다.



복싱의 영웅
흑인의 영웅
미국의 영웅
세계의 영웅 은

“Float like a butterfly, and sting like a bee.” 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하늘나라로 날아갔다.

[여행]

아카디아의 매력



김창수 (약대 64)

미국에는 내셔널 파크(National Park)라고 불리는 국립공원이 58개가 있다.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 옐로우스톤, 요세미티가 서부에 있는 국립공원이다. 메인주에 있는 아카디아(Acadia)는 미 동부 최초의 국립공원이다. 지난 7월 6일이 해상공원이라고 불리는 아카디아의 100세 생일이었다.

이번 독립 기념일 연휴(7월 2일 ~ 7월 4일) 기간에 2박 3일 일정으로 고교 동창 다섯 커플과 함께 아카디아 국립공원을 다녀 왔다. 나는 지난 가을에 상처(喪妻)를 하였기에 우리 일행은 11명이었고, 투어 회사가 주선한 관광 버스에는 한인들만 모두 54명이 뒀다.

좋은 여행의 3박자는 여행지, 동반자 그리고 안내자라고 한다. 세상은 넓고 유명한 관광지는 너무 많아서, 나는 좋은 여행의 조건에 여행지 선정보다는 여행 기간 중의 좋은 날씨를 꼽는다. 이번 여행 기간 내내 날씨가 맑았고, 그렇게 덥지도 않아서 여행하기에는 너무나 좋았다. 날씨가 좋으니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倍加) 되었다.

메인주 해안가에 있는 아카디아 해상공원은 뉴욕시에서 자동차로 곧장 달리면 8시간의 거리인데, 우리 일행을 가득 태운 60인승 관광버스는 플러싱에서 출발하여, 오가는 중간에 화이트 마운튼, 메인 랍스터 전문식당, 포트랜드 등대, 보스턴의 퀸시 마켓 등지를 들렀다.

보통 해안선 부근은 지대가 낮는데, 아카디아가 위

[영화]

The Greatest -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지종근 (농대 56)

“The Greatest” (1977) 영화는 Tom Gries가 감독하고 Mohammad Ali 가 직접 출연하고 링안에서 박진과 흥분을 자극시키는 권투 장면, 흑인 인권운동,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은 다큐멘터리처럼 편집되어 영화 상영 동안은 물론 상영 끝난 후에도 깊은 여운을 남겼다.

2016년 6월 3일 세계인의 애도 속에 서거한 알리 모하메드는 누구며? 왜 세계인들이 애도하는가? 1942년 캔터키주 주이빈에리에서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는 1960년 올림픽대회에서 미국대표로 18세에 출전해 라이트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금메달을 달고 다니며 자랑하고 다녔다.

그러나 우연히 백인 식당에 갔다가 “검둥이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불량배들에게 금메달을 뺏앗길 뻔한 일을 당하고, 이들을 격퇴시키고 난 후 울분으로 강다리에 가서 강물에 금메달을 던지고 더 이상

검둥이로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프로로 전향하고 인권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프로 전향 후 무슬렘으로 전향하며 그의 이름을 알리 모하메드(MOHAMMED ALI)로 변경하고 적극적으로 인권운동을 하였다.

1964년 해성처럼 나타난 22살의 캐슈어 (알리의 전 이름)는 당시 최강자 참피언 ‘리스턴’에게 도전장을 내면서 그의 특기인 떠벌이로 상대방에게 육설과 한 방에 날리겠다는 등으로 상대방을 자극시키고 출전하여 세상 언론의 예측을 뒤엎고 8회에 KO로 승리한 후 61전 56승(36KO)으로 복서의 삶을 마쳤다.

그는 1메타 90센티의 큰 키로 빠른 발놀림과 실세 없이 퍼붓는 컴비네이션 블로와 상대방 공격함에 그 빈 틈을 찌르는 카운터 펀치로 상대를 물리쳤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중 “베트공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데 왜 내가 베트남 사람을 죽이러 가느냐”고 입대를 거부해 세계 참피언 타이틀을 박탈당하고 난 후 법정 투쟁을 하여 1970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세월은 흘러 30대에 링에 다시 올라가서는 참패를 당했다. 그러나 그는 도전 정신으로 훈련을 하고 이내로 머리로 작전을 변경하여 26살의 무적의 챔피언에게 도전해 8회까지 맞아가며 방어만 하면서 상대방 기력을 뺏 후 8회에 사력을 다한 한방의 펀치로 KO 승 하였다. 이 멋진 장면은 나에게는 도전의 정신을 주는 교훈이었다.

복싱의 영웅

흑인의 영웅

미국의 영웅

세계의 영웅 은



가 충전된다고 한다. 아직 기회가 없었던 동문들은 이곳을 다음 여행지로 계획하시기 바란다.

이번의 짧은 여행 중에 우리 서울대인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한가지 일을 경험하였다. 첫날 아침에 안내인이 제안하기를 전체 인원 54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날 앞 부분에 앉은 분들은 그 다음날 제일 뒤로 앉고, 두 번째 부분에 앉은 분들이 제일 앞으로 가는 등 3일간 앉는 자리를 안배하자고 하였다. 이에 큰 소리로 반박하고 나선 60대초의 한 남성이 있었다. 그의 주장은 6시 30분에 출발하는 버스에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새벽 잠도 덜자고 5시 10분에 나와서 한 시간 이상 기다렸으니 자기가 잡은 제일 앞자리를 3일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첫날 그 남자의 일행인 두 부부가 운전수 바로 뒤의 앞자리를 잡았는데, 그들은 3일간 그 자리를 고수하였고, 나머지 선량한 50여 관광객들은 순조롭게 자리를 바꾸면서 여행을 마쳤다. 하루에도 여러 번 버스를 오르내리는 50명의 눈총을 그 네 사람은 그대로 받아낸 것으로 우리 서울대인으로서의 생각조차도 못 할 무례한 언행이었다. 좋은 관광지에서 가진 즐거운 여행 중 기억에 오래 남을 후안무치(厚顏無恥)의 전형을 본 셈이다.

〈CPA, 경영대학원 68, 논설위원〉



김지윤 (자연대 11)

한국보다 더 강하게 내리찍는 햇볕 아래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다.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가보겠느냐는 말만 남기고 훌쩍 떠날 때 엄마는 걱정하시면서도 불잡진 않았다. 말 그대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고서야 무거운 생활비는 커녕 비행기 값도 큰 부담이라는 걸 그녀도 아는 터였다. 망설임 틈이 없었다. 대학에서 주섬주섬 배워온 것들을 어딘가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엄마가 한국에서 열심히 기도할게. 배운 만큼 열심히 하고 오렴. 아프지 말고.”

밤 비행기로 발을 디딘 지 며칠 안 지나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진 행사로, 기사 작성과 영상 편집으로 바빴다. 아침 8시에 출근해 행사 준비를 돕고 이어진 브레인 네트워킹 심포지엄과 평의원회 숙기를 하며 새로운 내용, 생경한 단어들을 제대로 담아 쓰기 위해 애썼다. 만찬회장에서 삼삼오오 모인 동문을 카페라에 담으며 찍어둔 영상들을 어떻게 이어붙이면 이번 행사를 예쁘게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도 들었다. 어리바리 미국에 도착한 게 엇그제 같은데 시차를 느껴볼 겨를도 없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손길들은 빠듯하기만 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 각자의 자리에 돌아간 후에도 내 업무는 계속됐다. 미주동창회 회보는 행사를 마치는 대로 부랴부랴 7월호를 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온종일 속기록을 들여다보며 기사를 쓰고 고치길 반복

[인턴 후기]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사람’

했다. 편집장님의 지시를 받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 이 기사는 어떻게 수정할지, 저 기사는 어떻게 마무리할지 힘들기도 했다. 그 외중에 영상 편집을 틈틈이 하면서 회장님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쳤다. 다들 진지한 얼굴로 지난 행사에 대해, 회보에 대해, 동창회에 대해 고민하니 그 속에서 나 또한 말은 일에 소홀할 수가 없었다.

타지에 와서 한국에 있는 것처럼 일했다고 말하면 다들 안쓰럽게 안부를 묻곤 했다. 하지만 분명 몸의 고단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 한참 터울을 둔 선배님들 사이에서 긴요한 얘기를 듣고, 내가 겪어본 바 없는 문화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건 그 자체로 큰 도전이었다. 그 틈바구니에서 자기 일에 칼같이 철저하면서도 앞에 앉은 상대에게 한없이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미주동창회의 사람들을 만났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기만 했던 어른에서 점점 살갑게, 기꺼이 어린 후배를 받아주셔서 일해나갈 수 있었다. 일만 하러 온 줄 알았는데, 더 귀한 체험을 만났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해낸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은데 마음이 몽글해질 수밖에 없었다.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어찌 총당할까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미주동창회로부터 활동비를 겸한 장학금을 받았다. 비행기 값만 받아도 냉큼 감사하다며 춤을 췄던 내게 더 더욱 열렬했던 순간이었다. 스무 살 이후로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는데 덕분에 마지막 학비 걱정도, 비행기 값부터 두어 달 생활비 걱정까지 덜었다. “지윤이가 여기서 느끼고 받은 만큼 한국 사회에서 멋진 서울대

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회장님의 말에 괜히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느꼈다.

이제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왔다. 비록 기후도, 시간과 공간도 너무나 달라졌다. 하나 여전히 모교 미주동창회를 통해 만난 면면을 기억한다. 행사준비로 지칠 때 서로에게 버팀목이 돼준 사람들, 혼자인 외지에서 더 따뜻한 마음으로 신경 써준 사람들, 함께 일하고 대화하며 나를 한 아름 안아준 사람들. 결국 미국에서 내가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 또한, 그들에게 힘껏 받아들여졌기에 받은 만큼 베풀고 싶은 마음을 얻었다. 나누기엔 너무나 팍팍한 생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야겠다는 다짐이 서렸다.

가수 GOD의 노래 중 ‘쫄쫄 하나’라는 곡을 참 좋아하는데 문득 이번 인턴기간이 내겐 고군분투이자 포근함을 담은 쫄쫄 하나가 아니었나 싶다. 먼저 멋진 삶을 걸어오신 선배님들을 따라 나도 ‘쫄’ 살아가고 싶어졌다. 모교 미주동창회와 좋은 기회로 함께 할 수 있어 진정 감사한 방학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쫄쫄 하나 커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조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쫄쫄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조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 가고! - GOD <쫄쫄 하나>



길 없는 길, 사람도 물처럼 흐르더라

산악회 월례 산행 따라갔다가...

아주 오래간 만에 서울대 산악회 월례 산행에 따라갔다. 부드러운 황토길, 가벼운 꽃길을 꿈꾸었는데, 김동근 대장님께서 보낸 모임 장소까지의 안내에 “Class 2 hiking”이란 말이 있어 약간은 꺼림칙.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클래스 2 하이킹이란 “가끔씩 네발로 기어갈 수도 있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데, 대단한 것은 아니고 격해야 중상(severe injury)”이란단.

그래도 깊은 산 높은 하늘이 땀기는 날이다. 로스앤젤레스 뒷산 엔젤레스 포리스트로 차를 몰았다. 그런데 트레일 초입부터 자주 “클래스 2”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다. 아니나 다를까 앞에는 바위. 옆에는 낭떠러지, 대체로 그런 길이다. 내려가는 길이지만 오금이 저릴 수밖에. 김동근 대장님, 그리고 사모님은 길 없는 곳에서 길을 찾아내는 천재적 감각을 가지고 계



시다. 월례별뿔, 혼비백산 그렇게 어렵게 계곡까지 내려갔다.

계곡에서 클래스 2 하이킹 무용담, 그리고 점심까지 먹었다. 계곡 물길을 따라 내려가다 올라오는 트레일을 만나야 한다는 김대장님 말씀. 내려온 바위길을 올라갈 자신은 없고, 물길 따라 내려가는 수밖에.

그런데 물길은 물이 흐르도록 설계된 것이다. 물길을 따라 사람이 흐르자니 이젠 클래스 2가 아니고 클래스 10쯤 되 보인다. 하이킹 클래스는 클래스 5가 최고라니 더 엄살을 떨 수도 없고 따라 나설 수밖에. 문제는 가끔씩 나타나는 폭포. 나이아가라 급은 아니지만 내 키로는 세배쯤 낙차가 있다.

발랑 넘어진 거북이처럼 등을 대고 사지를 이리 저리 비틀어서 바위 물길을 내려온다. 때로는 다시 등을 바깥으로 뒤집고 바위틈에 손을 넣고, 보이지 않는 발견이를 찾는 묘기도 필요하다. 미끈한 바위에 발을 걸 자리가 없는 때는 김 대장님 어깨, 다음은 무릎을 발판 삼아 겨우 폭포를 내려오기도 했다.

길이 없어도 길은 있다. 존재는 그 순간이다. 바위 끝에 매달려 발 디딜 틈을 찾는 그 순간은 엄지발가락을 올려놓을 그 곳이 우주다. 물이 흐르듯 사람도 흐른다. 사람이 흐르는 그 길에는 아찔, 캄캄한 절벽도 있고, 작은 바위 모서리가 하나일 때도 있다. 그래도 먼저 가서 손 잡아주고 어깨로 받쳐 주는 사람들이 있어, 인생은 서걱, 삐걱 흘러간다.

이상실 (간호 88)

〈국악기 알아보기〉

해금



김미자 (음대 81)

해금(奚琴)은 두 줄로 된 한국의 전통 활현악기다.

몽골 계의 유목 종족인 해(奚)가 사용한 악기라 하여 해금이라고 한다. 이 악기는 중국에 유입되어 경극 반주에 쓰는 악기인 경호(京胡)로 사용되었다. 이후 한옥 타브가 낮은 음역대로 개량되면서 해금의 일종인 열후(이호 / 二胡/南胡)라는 명칭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시기는 고려 예종 11년(1116년)으로 중국에서 들어와 개량되어 해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으며 원형과 가장 비슷한 악기로 알려져 있다.

명주실을 꼬아 만든 두 가닥의 줄의 한쪽 끝에 공명통이 있어서 활로 줄을 마찰할 때 울리는 소리가 난다. 속된 말로 ‘깡깡이’라 이르기도 한다.

해금은 한반도에 언제쯤 전해졌을까? 조선시대 음악서인 악학궤범에 의하면 해금은 당나라에서 전해진 악기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전래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음악에 맞게 개량되면서 중국의 악기와 다른 우리 고유의 형태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궁중의 당악과 향악 연주에 사용되는 한편 민속악 연주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에 와서는 음역대가 넓어 웬만한 반음을 다 낼 수 있고 연주 기법이 다양해져서 전통음악에서부터 서양식으로 작곡한 창작음악의 독주악기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이달의 사진 'Reborn'



“오랜 세월 어둠을 헤매던 너,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 밝은 세상에서 마음껏 날아보렴!”

김정현 (공대 68)

독자의 광장

편집장님:

266호 6월호의 사설을 세번 읽고 7월호에 반응이 보이지 않아, 저의 소감을 전달 하려고 합니다. 편집장님의 날카로운 관찰과 사실을 용단있게 들고 나온 바를 보고 얼마나 동창회의 발전에 부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깊이 감사하고 존경하는 바입니다.

지적하신 몇가지 사실을 들어가며 저의 소견과 감상을 말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미주 총동창회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에서 동창회의 목적이 ‘Exclusively for charitable and educational purposes, promote mutual friendship and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Alma Mater’라고 집약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가, 본국에 동창회비를 보낸단든지, 모교의 발전을 돕는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개인적으로는 기부가 가능하지만 미주동창회가 돕는 것은 인사 초청에 끝나지 않나 하고, 우려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Charitable 한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창을 돕는단지가,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세우는 것이 미국에 있는 동창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일년 회비의 40%가 2박3일의 평의원회의에 쓰여진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 평의원회의를 주관하도록 합의 좋을 듯 합니다. 또 동창회 사업의 90%가 회보 출판이라니,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볼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격월이나 계간으로 나오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회보내는 일 외에 무슨 할 일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겠습니다.

셋째, 미주재단이 설립된 2011년부터 매년 100만불이 모교 본부로 보내졌다니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국의 GDP가 미국이민자들의 GDP보다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안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거금을 모금해서 어려운 처지가 아닌 한국의 모교 운영에 보냈는가? 보낸 사람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한 처사는 아닌지도 알아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편집장님의 결론으로 “잘난 서울대 동문들” 운운의 세론을 감안한다면 어려운 처

8월호를 읽은 독자들의 소감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news@snuaa.org

지에 있는 서울대출신 이민동창들에 대한 나눔(charity)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예를 들면, 6월호에 실린 ‘워싱턴 가정상담소 (FCCGW) 한정민 소장’의 인터뷰 보도를 보면 이민자 모두를 위한 봉사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도 1970-80 년대에 뉴욕과 뉴저지에 이태영 박사가 가정상담소를 설치해달라는 호소를 받고 당시 여러 의사동문들이 모여 뉴욕과 뉴저지에 각각 상담소를 거의 동시에 설립해 30여년을 하루같이 봉사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가정폭력등의 문제를 위주로 양 상담소에 관련을 가져 왔습니다.

특히 뉴저지 티넥(Teaneck)에 있는 AWCA(전 YWCA 산하에 있던 상담소)에는 1996년부터 만 7년 동안 매주 하루를 무보수로 봉사했습니다. 그때도 절실히 느낀 것은 한국인은 동포를 사랑한다며, 또 애국한다면서도 봉사할 줄 모르는 민족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유대인이나, 이태리, 아일랜드, 구라파 소수국사람들, 또 일본인들의 이민자들이 모두 자기를 동포애를 발휘하여 서로 돕는 것을 저는 정신과 개업에서 늘 경험했습니다. 우리 동창회에서도 한인회나 교포 사회의 일이라고만 보지 말고 이해와 과학적 판단을 하여 어떻게 하면 한국 이민 사회가 미국에서 낙오하여 사회보장에 의존하는 민족이 되지 않도록 지식인들이 모두 장래를 바라보고 상부상조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해암 (의대 58), 코넬대학 정신과 교수

더운 여름철 날씨에도 우리 동창회보 일로 수고 많으시지요? 어제 우편으로 배달된 7월호 오늘 아침 잘 읽었습니다. 매호 내용이 아주 썩 훌륭합니다. 7월호에서는 특히 ‘잊지 못할 휴가’에서 김 편집장님의 두만강 아니 정말 생사를 넘나든 실화가 어떤 납량의 호러 영화 이상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온 순간순간이 다 기적 이상의 ‘serendipity’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임봉기 동문의 Saul Bellow의 작품 세계/ 전무식 동문의 Alexander Hamilton/ 이원영 동문의 “천역이라도 그의 시 한 줄 값도 안 되리” 분단시대에 백석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 같이 너무 좋았습니다. 편집진의 높은 안목이 그 어떤 보석이나 진주 이상입니다.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고 큰 박수 보냅니다.

이태상(문리대 55), 작가

2차년도 회기: 동창회비 (2016. 7 ~ 2017. 6)

8월호부터 동창회비 2차년도 회기 명단이 기재됩니다

Tax Exempt - Federal TIN: 13-3859506

초청장비:	이병준(상대 55)	박경룡(악대 63)	서경애(음대 67)	뉴잉글랜드	김성일(공대 68)	워싱턴 DC	유우영(의대 61)	플로리다
	이성숙(공대 56)	박노면(사대 50)	서병선(음대 65)	MAR/NH/ME/VT	김연화(음대 68)	DC/MD/VA/WV	임수암(공대 62)	FLORIDA
남가주	이소희(의대 61)	손창순(공대 69)	서상철(의대 50)	김경석(공대 70)	김용주(공대 69)	강건식(사대 58)	정인태(의대 64)	김중권(의대 63)
S.C.A/NV	이영일(문대 53)	이광보(의대 63)	서정웅(악대 63)	김문소(수의 61)	김현배(의대 66)	강원하(의대 55)	정일학(상대 55)	박창익(농대 64)
강경수(법대 58)	이정근(사대 60)	원미량(미대 65)	선종철(의대 57)	김인수(사대 55)	김희주(의대 62)	공순옥(간호 66)	최우백(공대 76)	송용덕(의대 57)
강종경(공대 48)	이정화(공대 52)	온기철(의대 65)	손완배(농대 70)	김정환(공대 52)	구행서(공대 69)	권오근(상대 58)	한 호(상대 62)	전명자(미대 58)
강정훈(미대 56)	이정희(음대 55)	윤진자(미대 60)	송영순(사대 60)	박영철(농대 64)	노영일(의대 62)	권철수(의대 68)		홍순호(수의 74)
김동현(상대 53)	이재선(농대 58)	이관모(공대 55)	신할수(공대 59)	이금하(문대 69)	문병훈(사대 47)	김내도(공대 62)	중부텍사스	S.C.A/NV
고영순(음대 59)	이종묘(간호 69)	이장우(문리 72)	안재현(상대 62)	정선주(간호 68)	서상현(의대 65)	김동훈(법대 56)	MID-TEXAS	캐롤라이나
고용규(의대 69)	이준호(상대 65)	임동규(미대 57)	안용희(사대 49)	정태영(문리 71)	송승연(문리 52)	김영기(공대 73)	김은영(가정 77)	SC/NC/KY
공대용(공대 65)	이중희(공대 51)	임정란(음대 76)	양병자(사대 63)	최선희(문리 69)	박준환(의대 55)	김영희(의대 53)	이영태(상대 58)	아일랜드(상대 46)
김광은(음대 56)	이 청(농대 63)	정우석(의대 58)	오맹주(간호 77)		배영준(의대 54)	김종호(약대 58)		이범세(의대 59)
김규현(법대 53)	이정광(상대 61)	최경선(농대 65)	우관해(음대 63)	달라스	안은식(문리 55)	김혜식(공대 59)	필라델피아	이석형(사대 56)
김석두(농대 58)	임문빈(상대 58)	한종철(치대 62)	우대식(문리 57)	LA/DALLAS	이민우(의대 61)	나영은(가정 86)	PA/DE/S.NJ	이향열(법대 57)
김병연(공대 68)	임찬원(치대 68)	황동욱(의대 65)	우상영(상대 55)	이상일(의대 64)	박영철(문리 59)	강원철(수의 59)	가봉베(수의 59)	
김방완(공대 58)	임창희(공대 73)	황만익(사대 59)	유영호(의대 52)	이승자(사대 60)	박영호(공대 64)	고병은(문리 55)	김경희(가정 71)	테네시
김용재(의대 60)	임춘수(의대 57)		육순재(의대 63)	우 황(농대 56)	이성훈(공대 66)	박흥우(문리 61)	김경희(가정 71)	TENNESSEE
김창무(음대 53)	장 준(문리 85)	뉴욕	윤선원(의대 50)	전종희(공대 59)	이시영(상대 46)	서윤석(의대 62)	김국찬(치대 64)	김경덕(공대 75)
김택수(의대 57)	전삼욱(사대 52)	NJ/NY/CT	윤성일(의대 57)	조전태(문리 57)	이영철(공대 60)	석균범(상대 61)	김길우(상대 63)	서갑식(공대 70)
김희자(간호 54)	전원일의(의대 77)	케이어드워드사대60	이규호(공대 56)	탁혜숙(음대 67)	이정일(농대 57)	안선킨(농대 65)	김진우(공대 62)	
김희창(공대 64)	정동구(공대 57)	계동휘(치대 67)	이능석(의대 57)		이태영(공대 62)	유영준(의대 70)	김지우(공대 79)	하와이
김희재(사대 63)	정연운(상대 63)	곽노섭(문리 49)	이수호(보건 99)	룩키마몬틴스	임근식(문리 56)	윤경의(공대 57)	김운우(공대 76)	HAWAII
나두섭(의대 66)	정재화(상대 59)	곽노선(약대 55)	이영숙(간호 56)	MT/CO/WY/NM	임현채(의대 59)	이계성(간호 65)	김문옥(간호 76)	김상태(의대 57)
나승욱(문리 59)	정진수(공대 56)	곽선섭(공대 61)	이영신(간호77)	송요준(의대 64)	장세곤(의대 57)	이나원(사대 58)	김영우(공대 55)	남궁종(공대 52)
문인일(공대 51)	정 황(공대 64)	권문웅(미대 61)	이정옥(공대 52)	이석호(공대 66)	장윤일(공대 60)	이분환(공대 46)	김한중(공대 56)	장광수(사대 50)
박우선(상대 77)	조동훈(의대 57)	권숙자(간호 59)	이정은(의대 58)	표한승(치대 58)	정승규(공대 60)	이윤영(치대 74)	김현영(수의 58)	최경윤(사대 51)
박기춘(공대 53)	조만연(상대 58)	금영진(약대 72)	이종석(상대 57)		장 흥(문리 61)	이준우(공대 63)	문대옥(의대 67)	허신헌(의대 64)
박인수(농대 64)	조정시(공대 60)	김동환(약대 56)	이종환(법대 51)	미네소타	차대양(공대 55)	이재승(의대 55)	민홍식(수의 60)	하트랜드
박인창(농대 65)	조재길(사대 61)	김문경(약대 61)	이태상(문리 55)	MINNESOTA	최병우(의대 52)	장윤희(의대 54)	손재욱(가정 77)	IA/MO/KS/
박예인(약대 60)	조종차(간호 61)	김석지(의대 58)	이찬수(공대 55)	납제현(공대 67)	최해숙(의대 53)	송우림(문리 61)	송동우(의대 56)	NE/AR/OK
박형희(음대 66)	주정래(상대 65)	김석자(음대 61)	임재락(보건 68)	김영남(사대 53)	한외일(공대 62)	진금섭(약대 57)	신상재(수의 59)	구명순(간호 66)
박태호(치대 66)	주인수(상대 59)	김성현(약대 65)	임충섭(미대 60)	김영하(문리 65)	함성택(문리 55)	최규식(상대 64)	신성식(공대 56)	김경숙(가정 70)
박소진(문리 55)	치덕순(간호 59)	김용영(문리 63)	장화자(간호 60)	성욱진(치대 87)		최침미(사법 55)	신외	
배혜란(미대 70)	최복영(사대 56)	김우영(상대 60)	전병삼(약대 54)	송창원(문리 53)	엘라스카			
변영근(수의 52)	최용완(공대 57)	김정순(법대 53)	정인식(상대 58)	왕규현(의대 58)	ALASKA	워싱턴주		
서동영(사대 60)	최종권(문리 59)	김정희(간호 69)	정창동(간호 45)	황호숙(사대 65)	WASHINGTON	윌슨주(농대 55)		
서치원(공대 69)	하기환(공대 66)	김창화(미대 65)	조규웅(의대 59)		김동호(농대 58)	김동호(농대 58)	오진석(치대 56)	
서우원근(공대 66)	한근배(공대 65)	김현중(공대 63)	조종수(공대 64)	샌디에고	김영창(공대 64)	김영창(공대 64)	유기범(문리 66)	휴스턴
손기용(의대 55)	한정현(치대 55)	김훈일(공대 60)	주공로(공대 68)	SAN DIEGO	OR/ID	김재훈(공대 72)	이성숙(가정 74)	HOUSTON
손학식(공대 61)	한효동(공대 58)	문석면(의대 52)	최구진(약대 54)	강영호(의대 57)	김상만(음대 46)	이희백(의대 55)	이지춘(미대 57)	김태훈(공대 57)
신상하(공대 58)	홍선진(음대 70)	민발식(의대 60)	최영혜(간호 64)	김기춘(공대 61)	김상진(상대 67)	전병배(상대 65)	윤정나(음대 57)	김한섭(의대 53)
신상운(상대 54)	홍성선(약대 72)	민인기(의대 67)	최형무(법대 69)	남창우(사대 56)	최동순(문리 50)		전무주(수의 61)	이찬주(문리 63)
양승문(공대 65)	홍수웅(의대 59)	박건이(공대 60)	한승순(간호 70)	박우선(공대 57)	한영준(사대 60)	유타	정덕준(상대 63)	최관일(공대 54)
양운택(의대 58)	홍순창(사대 59)	박경숙(간호 72)	한인섭(약대 63)	이영모(의대 55)		UTAH	정태광(공대 74)	최성호(문리 57)
양창효(상대 54)		박수안(의대 59)	한태진(의대 58)	진성호(공대 64)	오하이오	워싱턴주	김인기(문리 58)	탁순덕(사대 58)
유석홍(상대 61)	북가주	박순영(법대 56)	함종금(간호 66)		OHIO			조영호(음대 56)
유영연(문리 56)	SAN FRANCISCO	박승화(간호 69)	허병렬(사법 42)	시카고	명인재(수의 75)	조지아	주기목(수의 68)	주기목(수의 68)
윤경민(법대 55)	공순화(사대 56)	박영태(상대 63)	허선형(상대 64)	IL/IN/WI/MI	성홍찬(수의 75)	GA/AL/MS	지흥민(수의 61)	지흥민(수의 61)
윤희성(치대 65)	강병성(의대 61)	박원성(약대 60)	현영수(음대 61)	강화영(문리 50)	이계석(의대 67)	강창석(의대 73)	최정웅(공대 64)	최정웅(공대 64)
이 관(공대 55)	김영춘(수의 64)	배명애(간호 47)	홍선경(의대 58)	김갑중(의대 57)	최인갑(공대 57)	손종수(의대 56)	최현태(문리 62)	최현태(문리 62)
이건일(의대 62)	노문의(사대 59)	변건웅(공대 65)		김규호(의대 58)		안승덕(상대 51)	한용오(보건 69)	한용오(보건 69)

편집후기

무더운 여름이 지나갑니다. 며칠은 폭염이 계속되다가 또 어느날은 폭우에 우박까지 쏟아지기도 하고... 참으로 변덕스러운 날씨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덕스러운가 봅니다. 아, 그런 건 매인인가 봅니다. 동창회보의 편집일을 맡으며,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기껏 들려오는 ‘동창회라는게 모여서 즐겁게 노는 거지 뭐 별거 있는가?’라는 대답이 시작할 때 들은 말이오 지금도 들리는 말입니다. 놀기 위한 거라면 구태여 동창회라는 데엘 와서 놀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 평의원의회에서 Education (장학위원회)와 Charity (나눔위원회)를 만 들어 활성화하고자 결의했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영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져 나갈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행히(?) 6월에 내보낸 본회의 사설 ‘미주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해 몇몇 동문이 동감한다는 말

을 해 주셨고, 선배동문 한 분은 ‘독자의 광장’으로 글(25면)을 보내오셨습니다.

꾸루절절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1년동안 미주동창회가 한 일이라고는 회보 발행 외에 겉으로 나타난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2차 3월의 궤원회의를 위해 그나마 동창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배님의 말씀처럼 미주 동창회는 묵묵히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더 친밀 분들과 나누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미주 동문들의 이역량을, 이 에너지를 어떻게 동력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지난 1년과 똑 같은 앞으로의 1년이 되어 버리겠지요. 동문님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번 8월호 특집 '친구' 페이지를 만들면서 '붕우(朋友)란 나이에 상관없이 뜻을 함께 하는 친구들'이라는 뜻을 배웠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바로 붕우구나! 라는 희망을 가져봅시다

편집장

광고 및 업소록비 · 기타 후원 동문 (2015. 7 ~ 2017. 6) 제13대 2년동안의 후원금 & 광고비

6) 제13대 2년동안의 후원금 & 광고비

Tax Exempt - Federal TIN: 13-3859506

후원회비:		강에드워드(사대 60)	200	김영화(문리 65)	200	유성턴주	이은미(자연 83)	200	임영자(간호 61)	500	이재원(법대 60)	200			
		곽선섭(공대 61)	300	샌디에고		김성열(치대 61)	200	최은관(상대 54)	200	임철빈(문리 61)	100	이충모(간호 69)	480		
남가주		김명철(공대 60)	200	박우선(공대 57)	200	이원섭(농대 77)	200			정명숙(간호 61)	500	이준영(치대 74)	200		
	고영순(음대 59)	200	김병숙(보건 64)	200	임춘수(의대 57)	400		휴스턴		정일화(상대 55)	50	장 준(문리 85)	240		
	김기형(상대 75)	200	김승호(공대 71)	200			유타	진기주(상대 60)	200	정창동(간호 45)	100	정재훈(공대 64)	240		
	김동석(음대 64)	200	김영만(상대 59)	200	시카고		김병혜(미대 77)	500		차기빈(공대 85)	200	정지선(상대 58)	240		
	김병연(공대 68)	300	김창수(약대 64)	500	강창만(의대 58)	100	김성완(문리 59)	200	지부분담금:			정진수(공대 56)	240		
	김 영(수의 63)	500	김기훈(상대 52)	200	구형서(공대 69)	200			남가주	3,000	종신회비(한번이상):	주기목(수의 68)	480		
	김종표(법대 58)	200	김한중(의대 56)	300	오동환(의대 65)	100	필라델피아		뉴욕	3,000	오인석(법대 58)	3,000	최무식(약대 66)	240	
	나두섭(의대 66)	200	노용민(의대 49)	200	이음락(공대 48)	600	강영배(수의 59)	75	뉴잉글랜드	1,000			최종문(상대 61)	240	
	박범순(가정 70)	100	문석면(의대 52)	400	임근식(문리 56)	200	김국찬(치대 64)	400	룩키마운틴	300	Education(장학금):		하선호(치대 81)	240	
	박자경(사대 60)	200	민준기(공대 59)	1,200	최희수(문리 67)	100	김금자(간호 63)	200	미네소타	600	손재옥(가정 77)	2,000	한상봉(수의 67)	240	
	박종수(수의 58)	1,500	손병우(문리 69)	200			김순주(치대 95)	200	북가주	500			한태호(인문 75)	480	
	박창선(공대 55)	200	신정택(약대 52)	200	조지아		김중휘(약대 54)	200	샌디에고	550	Charity(나눔):				
	백옥자(음대 71)	400	양순우(법대 67)	200	김용자(사대 60)	200	송영두(의대 56)	400	시카고	2,400	손재옥(가정 77)	2,000	디자인 광고:		
	안혜정(가정 77)	100	윤정옥(약대 50)	200	정일화(상대 55)	200	윤정나(음대 57)	200	알라스카	200	윤경숙(문리 59)	3,000	김광호(문리 62)	9,000	
	양승문(공대 65)	400	이강홍(상대 60)	500	주중광(약대 60)	1,000	이만택(의대 52)	200	오레곤	300			김영민(농대 72)	1,000	
	염동혜(농대 64)	500	이수호(보건대 69)	1,000			이성숙(가정 74)	500	오하이오	300	Golf 후원금:		김인중(농대 74)	1,000	
	이우진(공대 64)	300	이우진(의대 52)	400	애리조나		이치훈(미대 57)	200	워싱턴 DC	2,000	이정구(농대 60)	500	김창수(약대 64)	300	
	유재환(상대 67)	300	이정자(간호 59)	200	박양세(약대 48)	200	전무식(수의 61)	200	워싱턴주	600	NE Chapter	100	김혜정(문리 82)	5,000	
	이강원(인문 76)	200	이재량(상대 61)	500			전방남(상대 73)	100	조지아	600			노명호(공대 61)	1,000	
	이건일(의대 62)	200	이준형(공대 48)	1,000	오레곤		지흥민(수의 61)	400	중부텍사스	300	기타:		분당서울대병원	400	
	이명선(상대 58)	500	이흥민(의대 57)	200	김상수(상대 67)	400	정태광(공대 74)	100	필라델피아	1,500	김영실	100	국제전료센터		
	이병준(상대 55)	1,000	정인식(상대 58)	300	김성열(치대 61)	200	정학량(약대 56)	460	테네시	200			서치원(공대 69)	1,000	
	이정근(사대 60)	100	조정현(수의 58)	325			손재옥(가정 77)	26,000	하와이	300	업소록 광고:		유재환(상대 67)	1,000	
	이정복(공대 58)	20	최한용(농대 58)	200	오하이오		송영두(의대 56)	200	하틀랜드	600	김순옥(의대 54)	240	윤상대(수의 62)	400	
	이 청(농대 61)	50	허선행(의대 64)	400	최인갑(공대 57)	400	최종문(공대 61)	200	휴스턴	550	김순주(치대 95)	240	이전규(농대 60)	3,000	
	장정용(미대 64)	100					한재원 (공대 60)	200			김원택(공대 65)	240	임나균(약대 64)	1,500	
	전경철(공대 55)	200	뉴잉글랜드		워싱턴 DC				Brain Network 후원금:		김일영(의대 65)	100	이승훈(상대 74)	1,800	
	전상욱(사대 52)	700	김재호(상대 56)	100	강길종(약대 69)	200	캐롤라이나		김은종(상대 59)	200	김재영(농대 62)	480	최정웅(공대 64)	500	
	전원일(의대 77)	200	김창현(공대 52)	200	김진수(의대 60)	100	이종영(음대 58)	200	송순영(문리 52)	500	김창수(약대 64)	240	차민영(의대 76)	1,000	
	정동구(공대 57)	300	박종승(의대 56)	200	권기현(사대 53)	200	한광수(의대 57)	200	윤상대(수의 62)	200	남우현(경영 84)	240	한소여행사	300	
	제영혜(가정 71)	300	박영철(농대 64)		권철수(의대 68)	400			한재은(의대 59)	500	박희진(농대 78)	240			
	하기환(공대 66)	500	정선주(간호 62)	2,000	박원국(공대 52)	200	하와이		손재옥(가정 77)	3,000	서동영(사대 60)	240	Website 광고:		
			박종승(의대 56)	200	박평일(농대 69)	600	김승태(의대 57)	400			손재옥(가정 77)	480	김혜정(문리 82)	500	
북가주		윤상대(수의 62)	1,000	백 순(법대 58)	200	김창원(공대 49)	200			신동국(수의 76)	100	손재옥(가정 77)	500	K-Shopping	500
	강정수(문리 61)	200			변만식(사대 49)	200			모교발정기금:		이경림(상대 64)	240	KISS	500	
	홍 진(간호 56)	500	룩키마운틴스		서윤석(의대 62)	400	하트랜드		강재호(상대 57)	200	이경민(상대 55)	480	JG Business Link	500	
	황민익(사대 59)	400	송유준(의대 64)	200	오인환(문리 63)	200	구명순(간호 66)	200	김순덕(간호 61)	500	이상대(농대 80)	120	International, Inc. (이원로)		
					이선구(문리 65)	200	김경숙(가정 70)	300	김시근(공대 72)	300	이수호(보건 69)	240			
뉴욕			미네소타		이영목(공대 59)	400	김시근(공대 72)	200	박종승(의대 56)	100	이영일(문리 53)	240			
NYChapter	2,000		김영남(사대 53)	400			이상강(의대 70)	5,000	성흥환(수의 75)	200	이재덕(법대 60)	240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식품 / 음식점	우주개발 / 기술	클리닉
공인회계사	자연나라 Jayeng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NV 네바다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의료 / 약국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 (상대 81) Tel. (714) 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ochung@yahoo.com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운송 / 유통 / 원자재	부동산 Team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모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lee@gmail.com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이영일(문리대 53) Howard Y. Ree 3700 Wilshire Blvd., Suite 25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760-3700 Fax: (213) 383-2515 email: howardree@gmail.com	치과	리테일러 / 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Tel. (213) 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배윤범 치과 배윤범 (치대 69) Tel. (213) 385-1233 3540 Wilshire Bl. LA, CA 90010 michaelyoonbae@gmail.com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hp@yahoo.com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이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서비스와 가이드

usaajoutour.com

213-388-4000

268호 | 2016년 8월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9

NY / NJ (뉴욕 / 뉴저지)	내과	재활의학	한의원	
공인회계사	뉴저지 왕내과 Kyu S. WANG, M.D. 왕규성 Tel. (201) 224-6800 1033 Palisade Ave, Fort Lee, NJ 07024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MD-VA-워싱턴 DC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비뇨기과 정진우 비뇨기과 Dr. Chin W. Chung, MD 정진우 (의대 66) Tel.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치과	
부동산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oor 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이재진 심장내과 Rhee, Jai Jeen, M.D.F.A.C.C. 이재진 (의대 58) Tel. (718) 426-6464 37-25 75th Street, Jackson Heights, NY 11372	산부인과 정산부인과 전문의 Joseph Chong, M.D.F.A.C.O.G. 정조셉 Tel. (201) 461-5770 44 Sylvan Ave. #2-A, Englewood Cliffs, N.J 07632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327-2797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172 Main Steet Fort Lee, NJ 07024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알리지 이혁엽 알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350, Annandale, VA 22003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소아과 민재홍 소아과 Jae Hong Min, M.D., P.C. 민재홍 Tel. (718) 353-5300 34-09 Murray St #1fl, Flushing, NY 11354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loan.com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건축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내)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 (공대 93) Tel. (347) 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박종효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효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광고문의: (484)344-5500	

✂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성명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입학연도 :	지부 :	
주소 :	전 주소 :			
업소이름 :	업소 주소 :			
전화 :	Email :			
동창회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	일반광고	특별후원금
☐ 연 \$200 ☐ 연 \$500 ☐ 연 \$1,000 ☐ \$_____	☐ \$75 (1년: 2016.7~2017.6) ☐ \$75 (1년: 2017.7~2018.6) 1년: \$75 / 2년: \$150 ☐ 종신이사회비 (\$3,000이상)	☐ \$240 (2016.7~2017.6) ☐ \$240 (2017.7~2018.6) 1년: \$240 / 2년: \$480	*문의: 사무국 484-344-5500 Ext 302 Email: general@snuua.org	☐ Education (장학금) ☐ Charity (나눔) ☐ Brain Network 후원금 ☐ 모교발전기금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ua.org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Visa () Master () American Express () 기타 ()	전화 484-344-5500 Ext 302 or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	Date :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Purpose(목적) : Charity(나눔) · Education(배움) · Friendship(사귄)

서울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래(공)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순영(문) · 김은종(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옥(가정)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윤상래(수의)
후원회 부회장	제영혜(가정)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하용출(문)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황선희(공)
고문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총무국장	심희진(음)	사업국장	한중희(공)
조직국장	백옥재(음)	섭외국장	박형준(공)
재무국장	이성숙(가정)	특별사업국장	허유선(가정)
IT개발위원장 (Webmaster)	김원영(미)	사무장	이제니

회보 : 발행인 손재옥(가정)

편집위원장	김정현(공)	주필	정홍택(상)
편집위원	김진우(공) · 심회진(음) · 이상봉(문) · 이성숙(가정)		
	정덕준(상) · 정태광(공) · 이재원(사) · 한정민(농)		
	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억(공) · 홍선례(음)		
편집/디자인	이혜림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
민경훈(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완(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중민(공)
이강원(공) · 이민언(법) · 함은선(음)

인선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정승규(공) · 김병연(공) · 민준기(공) · 이상강(의)

장학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포상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각 지역 지부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감사

주기목(수의) · 박영철(농)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김병연(공대 68)	213,923,0607	byeongk@gmail.com	Feb-Jan
	차기회장	성주경(상대 68)	213,500,7977	jksung@skcoinsurance.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종수(공대 74)	484,480,0506	jskim0524@comcast.net	
뉴욕 NY/NJ/CT	회장	김도명(농대 70)	917,207,5949	dmkim516@gmail.com	July-Jun
	총무	조민형(음대 84)	201,440,2135	minhjoe@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정태영(문리 71)	978,908,0196	chungty1@snuac.kr	Jul-Jun
	차기회장				
달라스 LA/DALLAS	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룩키타운스 MT/CO/WY/NM	회장	송우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4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황호숙(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최흥수(자연대 87)	858,342,0245	heungsoo.choi@knobbe.com	Jan-Dec
	차기회장	서정용(공대 81)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시카고 IL/IN/WI/MI	회장	정승규(공대 60)	773,562,0677	s_jung@att.net	Jan-Dec
	차기회장	한경진(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문리 56)	520,271,2601	youn_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백대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균(자연 72)	703,785,8467	saekewn@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회장	하주홍(경영 87)	402,631,3567	jh.ha@live.com	Jan-Dec
	차기회장	임한민(공대 84)	425,444,3899	mrmstf@hotmail.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ul-Jun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강창석(의대 73)	770,825,1004	kangs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이상엽(공대 85)	770,622,5163	duluthcpas2@gmail.com	
중텍사스 MID-TEXAS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최정웅(공대 64)	484-467-7609	jungwoongchoi@gmail.com	Jul-Jun
	부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윤기항(법대 65)	561,962,5185	yuhn@fau.edu	Jul-Jun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이상구(자연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sbaek2@utk.edu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를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mposgi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장영준(농대 83)	913,544,2933	yjodds@gmail.com	
휴스턴 HOUSTON	회장	최인섭(공대 75)	713,952,8989	inchoi@msn.com	Jan-Dec
	부회장	구자동(상대 70)	713,206,1942	k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구(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eco-friendly

STATIONERY & GIFTS FOR PET AND NATURE LOVERS
MADE IN U.S.A.

김명혜 (미대 77)

WWW.PAPERRUSSELLS.COM P. 866.517.7738
INFO@PAPERRUSSELLS.COM F. 801.479.4663

제 38대 뉴욕지부
회장 김도명 (농대 70)
총무 조민형 (음대 84)





Promise Realty
iPromiseRealty.com
Domyung (Donald) Kim
Record of Broker Owner

Cell: 917-207-5949
Tel: 201-585-7766
Fax: 201-585-7767
Email: dnmkim516@gmail.com
172 Main St. Fort Lee, NJ 07024

서울대 동문 10% 할인

호른사이긴
아까운 당신

가길
환영해

듀오

LA 213-383-2525
NY 201-242-0505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한남체인의 門

새벽 5시,
고객을 맞을 준비로 바쁜 LA 한남체인

저렴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문,
신선하고 또 신선한 제품에만 너그러운 문,
품질이 좋지 않으면 굳게 닫히는 문,
그러나 세상 사람 모두에겐 활짝 열려있는 문 -

**어서오세요! 여기는 365일,
고객과 함께하는 한남체인입니다**

하기환 (공대 66)

LA점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토랜스점
(310) 539-8899
3030 W.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플러튼점
(714) 736-5800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다이아몬드바점
(909) 839-1121
21080 W. Golden Springs Dr.
Walnut, CA 91789

라팔마점
(562) 924-7422
4951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4

